금주의 기도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시대적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8월 6일 (토) 제 159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6 대선, 신앙함수 붕괴 보인다!

CT, 여러 설문결과 토대, 대선에서의 신앙함수 증발 가능성 보도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은 또 다른 정치적 전통인 "대선에서의 신앙 함수(God gap)"를 붕괴시킬 수 있다.

과거 치러진 대선들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은 한결같이 후보들의 종교성, 즉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읽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도했다. 그래서 해당 후보의 신앙함수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예측을 얻어내곤 했다. 신앙이 깊은 미국인일수록,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고, 덜 종교적인 유권자일수록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

그러나 '2016 대선은 한마디로 이러한 신앙함수가 전혀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2012 대선에서 그동안 기득권으로서 영향을 누렸던 WASP의 몰락이 입증됐던 것처럼, '2016 대선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신앙은 그다지 복음주의적 유권자들에게 별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러 설문 결과들을 토대로, '대선에서의 신앙함수'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준다(Goodbye, God Gap: Trump and Clinton Have Churchgoers Unusually Split).

신앙함수가 대통령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대선이 2016년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16 대통령 후보인 공화당 트럼프(왼쪽)와 민주당 힐러리

미국인들 대부분은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들의 종교관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신앙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도가 정치인의 정직성의 기준이 되며 정책 능력의 기준이 된다는 소박한 믿음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후보의 신앙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가 됐다. 사상적, 문화적 그리고 비크리스천 국가들로부터의 비기독교적 신앙 체계의 유입으로, WASP과 보수적인 크리스천 진영은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위기감을 갖게 돼, 선거에서 종교 즉 신앙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미 카터의 대통령 당선은 바로 대선에서 얼마나 대권 후보의 신앙이 중요한지를 한 마디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나자 카터는 손상된 대통령의 권위와 미국의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음주의자인 자신은 속죄를 위한 대통령(redeemer president)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닉슨의 경우 부정직함이 문제였기에 대통령의 정직성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정직함의 근거를 신앙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종교적 성향과 신앙의 정도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또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 깨어지면서 종교가 공적 영역으로 재등장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결과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했다.

복음주의자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미국의 보수적 개신교,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적극 지지했다. 단지 그가 복음주의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위에서 언급한 닉슨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복음주의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카터는 재선에서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인 그가 복음주의자들의 보수적인 정책 집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미 종교우익 세력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저울질해온 정치 우익들은 레이건을 내세우는 한편, 남부의 복음주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남침례교의 제리 폴웰(Jerry Falwell)을 설득해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를 결성하게 한다. 도덕적 다수는 '크리스천 보이스(Christian Voice)'나 '종교 원탁 테이블(Religious Roundtable)' 등과 힘을 합해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정치적 계산에 무게를 두는 쪽도 많지만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소개한 레이건 이후 공화당 출신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서 종교우익 지도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물론 클린턴의 당선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에서 종교가 반드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상황 등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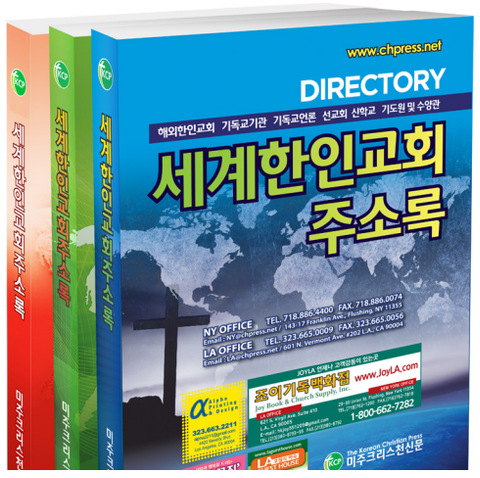
그러나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앙을 강조한 후보들이 증가하게 된다. 바로 초반의 선거 행보에서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별로 말이 없었고, 다만 전쟁 포로 당시 기도만 많이 했다는 식의 모호한 신앙 태도를 보였던 매케인도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복음주의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 선과 악의 잣대를 분명히 하는 등 복음주의적인 신념을 강하게 보여주려 노력했다.

〈3면에서 계속〉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7년도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7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7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니스 테러, IS의 새로운 공격 전략 패턴!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3면 지적장애인의 구원은 가능한가? 정승원 목사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축 ATS 정회원 승인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 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순서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2016년도 가을학기 시작 : 2016년 8월 29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시 론

가야 산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의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전도여행으로 시골에 가서 여름성경학교를 해주던 기억이 난다. 그 바람을 불어넣어준 것은 주일학교교사였다. 친구들은 의기투합하여 일을 해보자고 나섰다.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런 것을 하느냐고 탐탁지 않게 여기던 교회 어른들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경비를 마련했고 교회당에서 여러 날 날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끝에 찾아간 그해 여름성경학교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커다란 북을 가슴에 안고 둥둥거리며 마을 한 바퀴를 도니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성경 지식이 너무 짧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아는 만큼 그러나 열정을 가득 담아 가르쳤다. 어설픈 촌극도 했는데 별 이야기도 아닌데 아이들은 웃고 즐거워하고 감동했다. 시골 교회의 여 집사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일행에게 밥을 해주었고 식욕이 왕성했던 우리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어 함께 갔던 교사가 눈치를 볼 정도였지만 우린 그저 신났고 즐거울 뿐이었다. 그랬던 성경학교는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고3때만 쉬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 해마다 이어졌고 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런 전도여행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일대 사건들이었다.

그런 전도여행이 신학원에 들어가서 계속 이어졌다. 함께 신학교 앞에서 자취생활을 하던 8명이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한 전도사가 자기의 꿈은 낙도 선교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우선 낙도를 찾아서 전도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한국의 땅끝이라는 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그렇게 낯설고 물선 곳에 우리는 갔다. 오전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하지만 낮에는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다니고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전도집회를 하였다. 전하는 말씀들이라야 전도사들의 서투른 복음이었지만 분위기는 뜨거웠고 설교 후에는 다수의 결신자들이 있었다. 몇 년 후 교회가 없는, 그러나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낙도 선교를 처음 말했던 그 전도사는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신혼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돌아보니 교회와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팀을 꾸려서 나갔던 것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흥기와 맞물려 있었다.

이런 나의 추억들을 더욱 진하게 떠올리는 경험을 캄보디아에서 하였다. 수도 프놈펜의 젊은이 중심의 교회 주일예배가 마쳐진 후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현지인 전도사의 인도를 따라 2시간이나 걸려 품꼬라는 시골지역에 들어갔다. 빗물을 받아먹을 정도로 낙후한 지역이라 한국의 어떤 교회가 우물을 설치해준 것이 시발점이 되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어린이들만 모인다는 설명을 들었다. 찬송을 시작하자 어디선지 순식간에 2백 명 가까운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여럿이었고 개중에는 아예 벌거숭이로 온 아이들도 있었다. 빗물을 받아놓은 항아리에서 주저 없이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신바람이 나서 찬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였다. 동네 어른들은 주변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였다. 아이들은 너나없이 우리 선교팀에서 가져간 학용품을 받아들고는 가슴에 꼭 껴안고 고마워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나는 캄보디아와 캄보디아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함께 간 팀원들 역시 공감하며 자신들의 비전 트립에 그동안 들였던 수고에 대한 보람을 깨달았다. 그날 우리는 뜨겁고 진실하게 캄보디아를 축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향방을 가늠하게 되었다.

나의 이런 체험은 침체기에 놓여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회복할 사역의 작은 한 지류에 해당할 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다. 그 지상명령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로 시작한다(마28:19). 심정적으로도 가고, 지리상으로도 가고, 물질적으로도 가고, 젊은이도 가고, 노인도 가고, 남자도 여자도 가야 모든 일은 시작이 된다. 우리가 가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야만 우리가 살아남기 때문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자신들의 축복을 다른 열방으로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야 하지만 우리의 축복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기쁜 소식을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전하기 위해 흩어져야 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10:15).

danielkmin@yahoo.com

"국민 밉상"힐러리 민주당 대선후보 정식 지명

슬레이트/CT, 지난 20년간 힐러리 싫어하는 미국인들 정서 소개

지난달 2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함께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으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대선 예비 경선 즉 지명 경쟁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처음부터 압도적인 지명도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배경으로 가장 유력시돼왔다. 하지만 정치 현황의 변혁을 호소하며 젊은 세대와 진보층의 인기를 끈 샌더스 의원과 장기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당대회 지명 투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한 대의원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2,842명, 샌더스 의원은 1,865명이었다. 8년 전에 당 지명 경쟁을 펼친 오바마 현직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에 비해 클린턴 전 장관과 샌더스 의원은 정책적인 견해 차이가 크다. 샌더스 의원 지지자를 포섭하는 데는 시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힐러리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미국인들의 정서다. 미국에서 "힐러리를 싫어하는 정서"는 그녀가 영부인이었던 90년대부터 칼럼의 소재가 될 만큼 팽배했다. 그리고 이는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꾸준히 있었으며, 근래 들어 이렇게나 미움 받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힐러리가 소득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해놓고서 경선에서 입은 옷 가격이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하는 명품이어서 되놓고 '국민 밉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월가에서 수억원대 강연료를 받았고, 이메일 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는 '여자'라서 꼭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 역시,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포용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Slate)는 지난 20년 동안 미운 오리새끼처럼 힐러리가 미국인들에게 '국민 밉상'으로 자리잡은 원인을 말해준다(The Hillary Haters: Few figures in American political life have inspired such deep and decades-long contempt. But why?).

영부인 시절부터 싫어했던 정서 꾸준히 지속돼
소득평등 (반)행위, 수억원대 강연료, 이메일 파문...

현재 힐러리가 미움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공화당에서 연설문을 썼던 페기 누넌(Peggy Noonan)은 클린턴을 "본능적으로 정치적이며, 이로 인해 신경을 거슬린다"고 표현하며, 정치 경력 내내 자신의 정치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끊임없이 드러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90년대에 종종 보였던 "성녀 힐러리"와 같은 비아냥, 정치적 야망이 너무 커보인다는 비난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오늘날 클린턴이 지나친 도덕주의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마디로,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들 눈에 비친 클린턴은 부패한 냉소주의자, 거대권력에 가깝다.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군자와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최근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왜 싫어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클린턴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말을 바꾼다"에 동의했고, 82%는 그녀가 부패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역시 그녀의 자서전을 집필한 작가나 중도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얻은 결과가 '말과 행동이 다른', '필요하면 언제나 입장을 바꾸는, 그리고 '부패한 엘리트의 모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The Deep Roots of Our Hillary Hostility: A Clinton biographer and #NeverTrump third-party voter on why evangelicals are #NotWithHer).

시카고 교외에 사는 49세의 회계사 브라이언 그린 씨는 90년대에 보수였고 클린턴 부부를 싫어했다. "자신이 있는 자리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너무 잘난 체하는 느낌이었어요. 카리스마 없는 빌 클린턴 같았다고 할까요?"

그린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보수파에 실망했고, 2004년에는 하워드 딘을 지지했다. 이렇게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마음만은 그대로다. 이번 경선에서도 샌더스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해 클린턴을 찍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공화당이 "제정신인" 후보를 내기만 했어도 다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을 거라고 말한다.

한편, 클린턴의 전적과 정책을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워싱턴DC에 사는 31세의 시장분석가 마르셀라 애버딘의 아버지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애버딘은 클린턴의 강경한 중동정책과 친이스라엘 성향에 거부감을 느낀다. "클린턴이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정치인이 그렇죠. 제가 클린턴을 싫어하는 건 정책 때문이에요."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비호감도는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LA에 사는 작곡가이자 열성 샌더스 지지자인 78세 마고 구라이언 로스너는 92년 대선을 계기로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게 됐다. 특히 로펌 경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쿠키 굽고 차 마시는 대신 경력을 택했다"고 말한 것을 듣고 거부감을 느꼈다.

"집에서 쿠키를 굽고 아이를 키우는 보통 여자들을 무시한 거죠." 로스너는 가정주부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다니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보주의자의 입장에서는 힐러리의 노선도 문제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동성결혼도 화제가 되기 전까지는 지지하지 않았죠. 이메일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네타냐후와의 우정도 마음에 안 들어요. 대형은행의 기부금을 받는 것도 문제고, 보편적 의료복지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점을 다 고려해볼 때 힐러리는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에 오히려 가깝죠. 공화당원에게 제 표를 줄 수는 없어요."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겸편집인·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터키 쿠데타 발생원인 세속주의 vs. 이슬람주의 각축장

뉴스위크, 6시간 만에 끝난 터키 군 쿠데타 원인과 향후 전망 보도

지난 15일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군부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TV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에서의 충돌로 300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보도됐지만 상황이 "대체로 수습됐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가 "반역행위"이며 관련자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다. 쿠데타 직후 6000여명의 군인이 체포되고 약 8000명의 경찰이 해고 또는 구속됐다.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공직자 수천 명이 정직 또는 체포됐다. 사형제도의 부활이 거론되고, 정부는 미국에 망명한 이슬람학자 페흘라흐 귈렌을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뉴스위크는 군부 세력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한 이유와 향후 터키가 걸어가게 될 로드맵을 보도한다(TURKEY COUP: WHO WAS BEHIND IT AND WHY?).

정치 · 사회적 후유증 장기간 지속 예상

터키는 공식적으로 세속주의 국가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종종 이슬람주의를 끌어안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쿠데타는 2003년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이후 터키 정정이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하던 시점에 발생했다. 군부는 오래 전부터 터키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근년 들어 세력이 약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NATO에서 미국에 이어 제2위 규모의 병력을 자랑하는 터키 군부는 전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다. 군부는 1960년대 이후 정권이 3번 교체되는 동안 계속 정치에 개입해왔다. 그러나 2003년 에르도안이 총리에 취임한 뒤 군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성공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7년 군부는 진행 중인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온라인으로 엄포를 놓았다. E쿠데타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수사관들은 5년 전 군인과 저명인사들이 꾸민 진짜 정부 전복 계획을 적발해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 확대나 그의 보수주의 강화는 군부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터키에서 반정부 세력이 약화함에 따라 군 장교들은 "에르도안에 제동을 걸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 자신들뿐이라고 본다고 이스탄불의 안보 분석가 메틴구르칸은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기도 후 가진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터키는 이런 식의 반란에 놀라지 않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터키를 통치할 순 없다"고 말했다. 16일 이스탄불 공항 도착 직후에도 "그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정부는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었다. 귈렌은 한때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지만 2013년 서로 상대방의 부패를 비난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16면으로 계속〉

'2016 대선, 신앙함수 붕괴 보인다!

〈1면에서 계속〉

한편 이미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복음주의 언어를 캠페인에 사용함으로서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상당부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 대통령 부시 또한 자신을 "온정적 보수(compassionate conservative)"라고 소개함으로서, 남부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얻는데 성공했다.

심지어, 오바마 현 대통령 역시 릭 워렌 목사를 비롯한 '신 복음주의 진영'의 모임이나 프로그램들에 참가함으로서, 미국인들이 바라는 신앙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역설해, 몰몬교 신자인 롬니 후보를 제칠 수 있었다.

현재 트럼프(49%)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유권자들에게서, 힐러리 후보(45%)에 비해 불과 4%만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퓨 리서치 센터).

조지워싱턴 대학 설문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다. '2012 대선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민주/공화 선호도 즉 롬니 vs. 오바마 편차가 상당히 심했다(40%).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불과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온, 정기적으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카톨릭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22%나 증가했다.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로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놓고 트럼프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결국 신앙의 척도가 미국을 인도할 대통령 후보의 정직성의 기준이며, 정책 능력의 기분이 돼야 한다는 소박한 미국인들의 희망은 이번 선거에서 증발될 수 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힐러리 역시 신앙을 가늠할만한 어떠한 행동이나 소신을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 밉상"힐러리 민주당 대선후보 정식지명

〈2면에서 계속〉

하지만 로스너는 이라크 전쟁이나 의료 보험, 금융권과 관련해 힐러리와 같은 입장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바이든에게는 "어딘가 마음에 와 닿는 인간미가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클린턴이 탐욕과 기만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공화당이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 제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인터넷상의 의혹과 루머를 그대로 믿는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클린턴 지휘 하의 국무부와 여러 외국 정부, 클린턴 재단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피터 슈바이처(Peter Schweizer)의 신간 '클린턴 캐쉬(Clinton Cash)'는 내용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책을 인용하고 있다. 끊임없이 해명하고 물리쳐도, 클린턴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한편 사람들이 클린턴을 싫어하는 이유가 달라진 까닭은 어쩌면 클린턴 스스로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처음 영부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진보주의자였다. 하지만 1994년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인 패배를 맛본 뒤 그녀는 지나치게 조심하고, 과도하게 타협하는 캐릭터로 점차 변모했다. 즉 사람들은 힐러리의 원래 모습을 싫어했지만, 그녀가 비난에 맞춰 변화하자 이제는 다른 이유를 들어 그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끈질기게 이어지는 힐러리 혐오를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카리스마, 혹은 그 부재 역시 비호감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 클린턴에게 다행인 점이 있다면,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이다. 상대가 트럼프이기에, 클린턴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이후의 문제는 이처럼 만연한 "힐러리 혐오"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스탠포드대학의 마리앤 쿠퍼는 클린턴이 일단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면, 그녀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지 모른다고 분석한다. 이는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가설인데, 그녀가 상원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때는 비호감도가 높아졌다가도 실제로 의정 활동을 하는 중에나 국무장관을 지내던 시절에는 비호감도가 낮아졌다.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면서 한층 더 미움을 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소망 칼럼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이웃은 사촌이고 교인은 형제이다.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웃사촌보다 더 친절히 대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인생이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것이다. 성도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6:6)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택시기사 밀턴 부론스타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리스도를 전했다. 성경 내용을 퀴즈로 만든 후 카드에 인쇄해 번갈아 차 안에 붙여두고 정답을 맞힌 손님에게는 택시비를 받지 않았다. 손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또 장애인들은 무조건 무료로 승차시켜 주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택시 안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착한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넉넉히 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이다. 밀턴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와 택시조합 이사장은 그가 그런 선행을 베푸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춘 밀턴의 선한 삶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선행은 여건보다는 정신이 문제이다. 인도의 간디(Mohandas K. Gandhi)는 죽은 후에 유산이 밥그릇과 물레뿐이었다. 예수는 죽은 후에 무덤도 없이 남의 무덤에 들어갔다. 우리가 나타나게 하지 않고 숨은 선행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 기회와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 성도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선행을 감행하는 것을 생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남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내게로 되돌아온다. 롱펠로우는 "화살과 노래"에서 오래전에 쏘아 보낸 화살과, 부른 노래를 잃은 줄 알았는데 오랜 후 되찾았노라고 노래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11:1)고 하였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라는 말에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기회는 주어지는 때가 있다. 즉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제시대에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안진삼 목사는 전도사 일을 하면서 총독부에 정식 허가를 받아 양육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와 노인 30여명을 돌보았다. 어느 날 안 목사는 장로인 처남을 찾아가 양육원에 기부를 해달라고 청을 넣었다. 그런데 소문난 부자인 처남은 기부하겠다는 대답만 해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그러던 중 해방을 맞았다. 만석꾼인 처남은 재산을 공산당에게 모두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말았다. 후에 안 목사를 만난 처남의 말이 이랬단다. "그때 기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기회를 발견하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인색하면 기회뿐 아니라 쥐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선행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겠다. 엡 2:10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다. 약 4:17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였다. 어떤 일이 선한 것인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알고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선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였다.

nammicj@hanmail.net

Senior Pastor

Description
The Korean Christian Church ("KCC") is seeking a Senior Pastor to serve a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church and to provide Jesus-centered and gospel-centric ministry. KCC is a non-denominational and congregational church located in Honolulu, Hawaii.

General Qualifications:
1. Accredited theological seminary graduate (Masters of Divinity)
2. 10 year of pastoral experience preferred
3. Able to minister to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members
4.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2-7

Desired Qualifications:
1. Conservative theological background
2.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3. Able to work in the US

Credential and other documents
1. Resume
2. Cover Letter which includes an individual mission statement, statement of faith, and personal testimony
3. A copy of Masters of Divinity diploma and acopy of ordination certificate
4. Two recent audio/video sermons for KCC to keep (bi-lingual sermon preferred)
5. Two recommendation letters –sealed with signature and personal contact (1 professional;1 personal)

Miscellaneous
1. Submit application via E-mail or postal service. All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KCC is not responsible for lost or stolen documen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Pastor Search Committee.
2. For those who pass paper screen, he/she may be requested ad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s.

Submission
1. Address:Attn: Pastor Search Committee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iha St. Honolulu, HI 96817 USA
2. E-mail: hi.kcc.ptc@gmail.com
3. Deadline: 10/01/2016

호놀루루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사람이 먼저 되라

도박에 빠진 유학생이 등록금까지 다 날려보내고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러나 한 주간 일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돈을 주면 그 다음날 식당에 일하러 나오지도 않는다. 찾아가보면 카지노에서 밤새워 도박하느라 눈이 빨개진 채 앉아있단다. 어느 분은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의학계의 보고서를 읽고는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3일이 못되어 그 담배를 끊겠다고 또 결심을 하고 있단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는 옛말이 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물론 환경 때문도 아니다. 그가 과연 얼마나 사람다운가? 그 사람 됨됨이에 달려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집사님 댁에 가보면 가정의 가훈을 커다란 액자에 써서 잘 보이는 벽에 걸어놓았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온 가훈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먼저 되라'이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면서까지 정직해라, 책임을 다하라, 어려울수록 형제간에 우애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사람이 먼저 되라고 훈계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출세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다. 가정이 세상에 사람을 출생시켜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는 곳임을 생각하면 대단히 뜻 깊은 좋은 가훈이라 생각했다. 사실 어느 가정이나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Economic animal이라는 돈만 잘 버는 사람만 알아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이 먼저 되라는 가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칠고 험악할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신명기8장은 하나님가족의 가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경을 거치게 해서라도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얼마나 출세하는가도 아니다. 최종 관심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신명기8장은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다. 그 제목을 부친다면 역시 '사람이 먼저 되라'일 것이다. 사람의 외모, 그 소유, 사회적 지위, 그런 것으로 말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다른 모든 계획을 다 양보하실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 되게 하는 것이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저절로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근본을 고쳐서 마침내 사람이 되면 그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머리가 아주 좋은 데도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돈 많은 부자 장로님 한분이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계속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20여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속으로는 대학교수나 아니면 어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이 "그 머리 좋은 사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런데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속이고 또 사기치고 하다가 그동안 여러 번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락날락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며칠 전에 또 붙잡혀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이다. 살려놓은 것, 공부시키는 것, 아니 머리 좋은 것,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다. 사람 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혹독한 역경을 겪게 해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개성이 강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이 훌륭해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자기소신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죄 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말이다. 이 세상에 내 소신껏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소신은 하나님의 소신 앞에서 꺾어지고 죽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소신 앞에 내 뜻과 소신을 과감히 접겠다는 결단이 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역경의 광야에 몰아내 치실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달픈 광야생활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를 꺾고 자아를 죽여야 한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커다란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고달픈 광야 40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 만들기 과정이었다. 역경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역경과 고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아닌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을 낮추고 자아를 꺾고 그리고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자라나지 않으면 망한다

(사사기 16장 21- 31절)

2016년 7월 7일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저격수에 의한 총격으로 5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9명의 경찰관과 시민들이 부상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관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총격 사망 사건인 앨턴 스털링 총격 사망 사건과 필랜도 캐스틸 총격 사망 사건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이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최근의 테러관련 사건은 얼굴 없는 전쟁, 지역없는 전쟁, 아무도 책임 못지는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미국 장로교 제222차 포틀랜드 총회(오레곤 주)에서 첫날 오전 11시에 개회 예배를 드린 후에, 최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무슬림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포틀랜드 지역의 무슬림 종교 지도자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서 그는 무슬림 지도자로서 인사를 할 뿐 아니라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무슬림 기도를 듣게 된 총대들과 참석한 방청객들은 무척 당황하게 되었고, 한인 총대들은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총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7일 한국과 미주에서 참석한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의원님들을 모시고 펜실베이니아 주 랭카스터에 있는 밀레니움 극장(Sight & Sound Theatres)을 다녀왔습니다. 이 극장은 미국 전역에서 성극 뮤지컬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랭카스터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고 청각화 함으로 많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의 느낌은 오늘의 미국과 오늘의 한국,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처럼 보여져 기도의 사명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가장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입다 이후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활환경과 조건이 좋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탕하며,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에 빠져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마침내 블레셋에 의해 지배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를 40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을 덜어 주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부름 받은 사역자,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1.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간직합시다.

삼손은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삼손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이유로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은 머리털을 밀지 않으며,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며, 죽은 시체에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장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신실하고 택함 받은 믿음의 용사들에 의해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실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본장에 나타난 나실인과 같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스스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케 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 유혹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도 계속하여 이방 여인과 교제하며 스스로 위기와 시련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였습니다. 삼손은 한 나약한 여자의 유혹 앞에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졌습니다. 삼손은 힘있는 장사였지만,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일순간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며, 건전하지 못한 이성과의 관계나 교제를 특별히 삼가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한 들릴라의 간계에 빠진 삼손은 결국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리고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9면으로 계속〉

2016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5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웹페이지 (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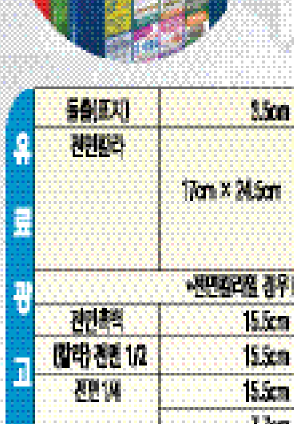
응모마감 2016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6년 12월 15일, 본 교회 웹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담임 장춘원 목사
web www.NLChicago.org
e-mail newlifechicago@yahoo.com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847-359-5200 F.224-836-1691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거주하고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사(교회명, 기관명, 기관장<만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필드로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5.5cm X 4.5cm		$800.00
전면칼라	17cm X 24.5cm	표지내(전2면, 뒷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안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의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15.5cm X 5.8cm		$350.00
	7.7cm X 11.7cm		
전면 1/8	15.5 X 2.8cm		$250.00
	7.7cm X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2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98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0, Fax.(323)665-0048
Email :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Take Back America! 미국이 꼭 회복돼야 하는 이유 [상]

신앙 때문에 해고당한 메이시 직원의 승리를 위해 기도절실!

Javier Chavez는 천주교인이며 뉴욕주 퀸즈에 있는 Macy's 백화점에서 26년전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그의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백화점 형사로 승진하고 더 나아가 수석 형사로 승진한 매우 성실하고 충성스런 26년 베테랑 형사(Sr. Detective)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5월에 한 여성과 그녀의 딸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어서 무섭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Chavez가 한 경비 보안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남자에게 여자 화장실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처음에는 "나가라고 하는 게 불쾌하다" 라고 불평하며 안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여자라고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haves가 나중에 목격한 것은 그가 화장실을 나가며 여자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장을 한 남자가 이미 백화점 매니저에게 가서 불평을 한 이후였기에 매니저가 Chavez를 불러서 메이시 백화점은 오바마정부(민주당)에서 추진하는 "All Gender-남녀 혼용화장실 정책"을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Chavez는 그런 정책을 메이시에서 수용하는 것을 몰랐으며, 무엇보다 오늘처럼 분명한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의 캐톨릭 종교적 신념과 성경에 반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남자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기에, 한 아빠로서 메이시 백화점 정책에 자신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HR에 불림을 받아 회사측의 설명을 듣고 자신은 메이시의 정책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정책이라면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Chavez는 메이시 HR로부터 놀랍게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 해고선거를 받은 Chavez는 불공평한 해고에 메이시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Chavez를 대표하는 천주교 교리의 Bill Donohue는 "이 일은 개인적 그리고 종교적 자유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동의를 안했다"고 그를 해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개인과 신앙의 권리를 빼앗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Bill Donohue는 이야기하길 이런 경우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예이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Chav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 couldn't lie and say that he was a woman 나는 남자를 여자라고 거짓말 할 수가 없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말씀(정책)을 따를지 아니면 메이시의 정책을 따를지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요.

동성애자 사용 화장실 문제로 백화점 직원 실직당해
정부 정책과 위반되는 설교하는 목사에게 세금 위협

성경적 가치관을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항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절실!

IRS는 오바마 정부와 오랫동안 손을 잡고 미국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반동성애나 성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의 정책과 다른 설교가 있는지 여러모로 모니터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유주의 주들(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은 친동성애 주들이 되었기에 동성애 운동단체들은 바이블벨트(Bible Belt)가 있는 중부 쪽으로 움직여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 연방국세청(IRS)에서는 매우 열심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Gus Booth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 Warroad Community Church(미네소타)에 다녀갔습니다. 이유는 설교 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나온 것이었지요. IRS가 왔을 때 목사님은 드디어 올게 왔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법원에 가서 우선은 미국 헌법(시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법) 대 IRS(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설교를 하면 세금법에 어긋난다고 함)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IRS에서는 Johnson Amendment를 사용하여 교회에서 정치적 설교를 하면 세금 면제를 잃는다고 그동안 계속 협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화당 플랫폼에서는 감사히도 도날드 트럼프를 비롯하여 이 개정법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사 23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위협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공화당 모임에서는 안타까움과 미국을 회복하기 위한 결심들을 다시 하였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있는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the State(정부와 교회의 분리라는 법안)에 의해,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신념에 따라 설교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US Constitution(미연방헌법)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국세청이 설교를 검열하는 것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ohnson Amendment이라는 것이 연방헌법을 트위스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Johnson Amendment의 폐지를 신속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날드 트럼프도 이 개정법은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Johnson Amendment가 폐지되고 목사님들이 더 담대해지도록 저희 한인교회에서도 앞으로 Johnson Amendment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아이다호 연방변호사

지난달 아이다호 주 트윈 폴스(Twin Falls)시에서 저소득 아파트에서 사는 14세 수단 난민 남자가 10세 된 수단 난민 남자아이와 7세 이라크 난민 남자아이들을 시켜서 5세 미국 여자아이를 아파트 세탁실에 가둬놓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고 여자아이 옷과 입안에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을 14세 수단 남자아이가 비디오로 찍다가 한 노인이 세탁실에 들어와서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다호 주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대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주로 이슬람권 난민들)을 이 조용한 동네에 입주시키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Chobani 요구르트 공장은 무슬림이 주인이고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을 이슬람 나라에서 노동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3명의 난민 남자아이들이 5세의 미국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은 어쩌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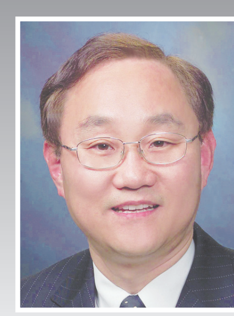
난민에게 강간당한 5세 여자아이의 잘못이라니…!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아이다호 연방변호사 Wendy Olsen은 도리어 항의하는 미국인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정치인을 반대하며 '희롱'하는 것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연방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문제다. 내가 보기엔 난민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트려서 미국 사회를 나누고자하는 미국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극히 비민주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언을 하여 시민들의 항의는 더 커졌습니다. .

이슬람 나라에서는 강간당한 여자가 간음죄로 돌 맞아 죽는 게 법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겨우 5세 된 여자아이가 성폭행 당했는데 미국 연방변호사라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오히려 성폭행을 한 이슬람 나라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니 이런 일은 아이다호 주 시민들만 들고일어날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기억하고 지금쯤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5세 여자아이를 위해 기도와 모든 서포트(support)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재 천국은 장소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지구에 천국이 임하는 것인지요?
-팔로스 버디스 김난경

A: 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분명 지구가 아닌 은하계, 어떤 별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천국은 온 우주의 사령탑으로 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입니다. 박형용 박사의 책에 의하면 이곳은 지구와 아주 먼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곳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자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분명 이 지구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 역시 미래적인 사건이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후서 3:12-13절에서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정확한 천국장소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재림 때 새하늘과 새땅 이뤄져

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현 지구)이 완전히 소멸되기보다 형태적인 옛것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소멸설 내지는 멸절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진다고 하는 갱신론입니다. 멸절설은 버커와 루터교 신학자들의 견해로서 현재 이 우주는 완전히 멸절되고 새로워져서 옛 것과 새것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호크마 같은 사람들은 갱신론을 주장합니다.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호크마의 갱신론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지구상에 재림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천국인 새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별들의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라기보다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되며 이 땅에 하늘로서 천국의 도시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가 그곳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크기는 1만2천스타디온으로 약 2130제곱킬로 미터입니다. 장광이 같은 길이 높이 폭이 같은 정입방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척도로 계산한다면 그 크기는 225만 평방마일입니다. 그 성곽이 벽옥 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성과 길은 다 정금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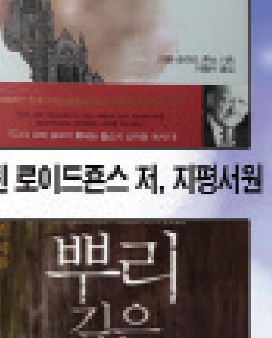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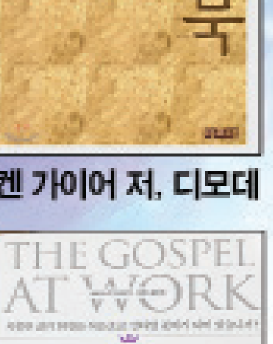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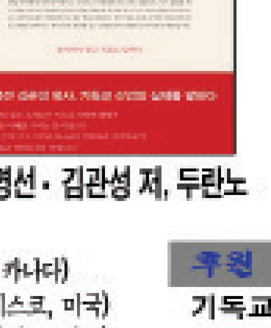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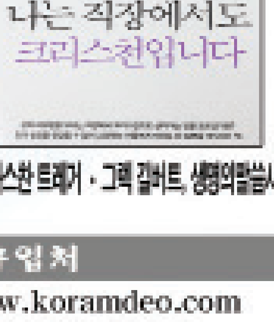
폴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켄 가이어 저, 디모데


박영선·김관성 저, 두란노

강준민 저, 두란노


세바스찬 트레거·그렉 길버트, 생명의말씀사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엔젤레스,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가나의 하우사(HAUSA)

가나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열대국가로 17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으며 그 중 16만 명이 하우사족이다. 이 종족은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민족 집단이며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다.

하우사족의 기원은 니제르와 나이지리아 국경 사이에 걸쳐있는 7만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하우사의 땅(Harusa land)"이라 일컬어지던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약 500여년 전부터 가나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5세기 무렵 "하우사의 땅"으로부터 최초로 가나 북동쪽에 자리잡기 시작했던 이슬람 상인들은 18세기에 와서는 상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풀라니족과 "성전"을 치르게 됐고 이후 가나에 하우사족의 이민이 증가됐다. 이들 상인들을 비롯해 이슬람 성직자들, 하우사어를 쓰던 노예들은 가나에 하우사족의 문화를 보급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

삶의 모습

15세기부터 하우사족 상인들은 현재의 가나 지역에 섬유류, 가죽제품, 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마구 등을 수입했다.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예, 콜라열매, 커피, 금, 코끼리 상아 등은 하우사족이 거래했던 주요한 상품자원이었다.

상업의 확장으로, 가나로 유입된 하우사족의 수는 증가했으나 극소수만이 부인들을 동반 거주 했고, 대개는 생활기반이 잡히는 대로 현지처들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몄다. 그러나 성직자들을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초빙해 자녀들에게 코란을 가르치도록 했으며 이는 다른 종족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되도록 받지 않고 그들만의 전통을 잇기 위함이었다.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고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며, 친지 방문이나 축제 혹은 일터를 제외한 외출은 제한을 받고 있다. 육아와 요리에 필요한 식수와 연료공급을 포함한 가사노동이 가장 큰 임무이며, 어떤 형태로든 여가시간을 내어 딸의 혼수지참금을 마련할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매우 근면하며 게으름은 그들 사이에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군대, 무역업, 사회복지, 이슬람 포교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동시에 몇 개의 겸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이 그들 종족으로 하여금 종교와 상업방면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끔 했다.

하우사족의 전통의상은 느슨하게 드리워진 가운과 바지로 돼있다. 가운에는 통풍을 위한 양 옆 트임이 있고, 바지도 윗부분과 중앙은 넓고 무릎부분이 좁은 형태다. 가죽 샌들과 터번도 전통의상의 일종으로서, 오늘날에도 가나 북부의 부유층은 전통의상 차림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식 의복이나 기성복을 입기 시작하고 있다.

신앙

종족의 99.9%는 이슬람교도다. 이는 가나 전 인구의 16%만이 이슬람교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카디리아(Qadiriyah) 동맹과 티자니야(Tijaniyah) 규율 등이 아직도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반면 전통과 혼합된 종교관행 또한 행해지고 있다. 선과 악을 주재하는 다양한 신들이 숭배되고 있으며 신령이나 귀신들린 사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교도적 제사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제사의식은 가족에 의해 행해지지만 병에 대한 처방에는 전문가를 부른다. 성직자들이나 주술사들은 가장 훌륭한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술사들에 의하면 각각의 주문은 나름대로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인간사 모든 것에 대한 처방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3개의 선교단체가 사역하고 있으나 아직은 160여명만이 믿음을 가진 하우사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민주 노선 '좌클릭' … "정책에선 샌더스가 승리자"

힐러리 클린턴을 후보로 지명한 민주당이 25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은 전체적으로 당의 노선을 '좌클릭'한 점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겼지만 정책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지어 샌더스의 공약 책임자였던 워런 거넬스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했던 80%를 얻었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못박은 점이다. 이는 샌더스가 줄기차게 주장한 공약이다. 부자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고, 전문대 과정인 커뮤니티 대학을 무료화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사 주간 타임(TIME)은 "당원로들이 정강정책을 받아보고 '대담하고(bold) 공격적(aggressive)이다'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와 현 정부의 이민개혁안을 지지한 것은 샌더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고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샌더스가 반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샌더스를 한방 먹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TPP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오바마를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외교관계에 있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충실히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미 FTA를 대표적으로 찍어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트럼프와 달리 '50년 친구'인 나토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기존 조약도 충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점은 오바마 정권에 비해 보다 개입주의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과 소수자 문제에 있어선 대부분 기존 민주당의 진보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낙태권 옹호를 명시한 데 대해선 일부 지지자가 반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낙태를 옹호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2100만명의 민주당 지지자를 배신했다"고 보도했다.

'종교전쟁' 촉발…전선 넓히려는 IS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26일 프랑스 성당 테러는 IS가 서방과의 대결 전선을 전 세계의 교회와 성당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테러 행위를 기독교 대 이슬람 세력의 충돌이라는 '종교전쟁'의 틀 속으로 가져감으로써 전 세계 IS 추종자들에게 테러 의지를 더욱 고취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울러 '종교전쟁 수행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 점점 위축돼 가는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프랑스 북부 생테티엔 뒤 루브래 성당에서 자크 아멜(86) 신부를 참수한 IS 추종자들은 테러 당시 기독교 혐오성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그들은 성당 제단에서 신부를 무릎 꿇게 한 뒤 아랍어로 설교를 했다. 테러범들은 '기독교 세력이 우리를 파멸하고 있다'는 취지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는 "테러 정황상 종교전쟁이 촉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IS가 기독교에 혐오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기독교 계열인 콥트교 이집트인 21명을 참수하는가 하면 2014년 8월에는 이라크 내 기독교 소수파인 야지디족을 집단 처형했다. 지난해 1월에는 프랑스 잡지인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전개되는 IS 축출작전을 '서방의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는 교회나 성당을 직접적인 테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라크와 시리아 내 전쟁이 위기로 치닫고 서방 출신의 대원들도 각국의 통제로 더 이상 중동으로 불러들이기 어려워지면서 '현지테러'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테러 대상을 생활 주변의 교회와 성당으로 정해 '테러의 일상화'를 꾀하려 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교회와 성당이 전 세계 대부분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출입도 자유로워 보안 측면에서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예배나 미사 때 수백명, 수천명이 운집하기에 테러 시 피해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소지품 검색 등 출입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기독교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마땅히 손쓸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테러를 일으키기 좋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향후 비슷한 테러가 잇따를 전망이다. 교회와 성당은 생활 속 익숙한 장소여서 '아마추어 테러리스트'들도 테러 대열에 속속 끼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도 10대 2명의 초보 테러리스트들이 일으켰다. 워싱턴포스트는 "아마추어들이 테러를 일으키면서 테러의 임의성(randomness)이 더 커졌고 사전에 막기도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프랑스24 방송은 27일 "보안으로 교회 테러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국민들의 단결과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군함에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하비 밀크' 이름

미국 해군이 현재 건조되고 있는 군함에 암살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하비 밀크(1930-1978)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29일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U. S. Naval Institute News)에 따르면 레이 메이버스 해군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건조되고 있는 미 해군 군사해상운송사령부 소속 '존 루이스 급(級)' 급유선 여섯 대 중 둘째 배인 'T-AO 206'호를 'USNS 하비 밀크'로 명명키로 했다고 연방의회에 통보했다.

존 루이스 급 급유선 중 첫 배에는 평생 인권운동을 벌여 온 존 루이스(민주당·조지아·1940-)연방하원의원의 이름이 붙는다.

나머지 네 대에는 1950-1960년대에 인권을 보장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미국의 진보 대법원 시대를 이끈 얼 워런(1891-1974) 전 연방대법원장,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내며 인권 정책을 진전시킨 로버트 F. 케네디(1925-1968), 여성 참정권 운동가 루시 스톤(1818-1893), 흑인 여성 노예해방운동가 소저너 트루스(1797-1883)의 이름이 각각 붙을 예정이다.

하비 밀크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순교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밀크는 뉴욕주립사범대(현 올버니 뉴욕주립대)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해 1951-1955년 샌디에이고에서 장교로 복무한 후 중위로 제대하고 뉴욕에서 교사, 보험계리사, 투자사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본인의 성적 성향을 남들에게 비밀로 했으나, 1960년대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을 목격하면서 정치 참여 의식을 갖게 돼 1970년께부터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72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후 1977년 선거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공개적 동성애자인 선출직 공직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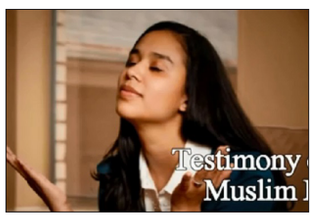
그는 1978년 취임한 후 조지 모스코니(1929-1978)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협조를 받아 동성애자 인권 보장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그해 11월 시장에게 앙심을 품은 전직 시의원에 의해 모스코니 시장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청 집무실에서 암살됐다. 그는 암살 당시 해군 잠수사 버클을 차고 있었다.

밀크 시의원과 모스코니 시장의 암살 사건은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이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영화, 오페라 등도 제작됐다.

미국 해군이 '하비 밀크'라는 이름을 군함에 붙인 것은 동성애자들의 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원래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으나, 1993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을 도입해 '비공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2011년부터 본인의 성적 성향을 밝힌 '공개적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했으며, 올해 6월말부터는 공개적 성전환자(트랜스젠더)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슬림성직자 가문 출신 여성 간증 역대급



극단적 이슬람 테러조직 IS를 비롯해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으로 회심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무슬림 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순교를 작정하고 회심한 이슬람교 성직자 가문 출신 여성의 간증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캠퍼스기사단 HCM TV는 유튜브에 42분 5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 파티마의 아버지는 인도 출신으로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까지 전부 모스크(이슬람 사원)의 이맘(종교 지도자)이었다. 그는 불치의 죽을병에 걸렸으나 크리스천 친구의 짤막한 기도를 통해 단번에 완치됐다. 그 이후 그는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자 가족들의 암살 시도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그는 초자연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선교사가 된 그는 사도바울처럼 사역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까지 경험하고 있다.

영국교회, 기독교 향한 테러 공포에도 담대한 신앙 강조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신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어떤 분열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교회가 프랑스 가톨릭 신부에 대한 이슬람국가(IS)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열린 교회와 예배를 천명했다. 테러나 폭력에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27일 런던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 주변. 테러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넘쳤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 교회당이다. 17세기(1643-1649)에 청교도신학자 100명이 모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문서를 작성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인근의 또 다른 성공회 교회인 세인트폴 대성당도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영국의 인터넷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투데이닷컴에 따르면 영국성공회 대변인은 "테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며 "성공회는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예배자와 방문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북부 생테티엔 뒤 루브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자크 아멜 신부가 테러로 살해된 사건은 이곳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면 톱으로 '가톨릭 신부가 IS에 의해 순교했다'는 제목을 달았다. '더 타임스' 등 영국의 주요 언론도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3~4면씩 지면을 할애했다.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교회를 향한 첫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내무부는 교회 안전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240만 파운드(약 35억6817만원)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성공회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교회는 CCTV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등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경찰도 "아직까지 영국교회나 기독교인에게 특별한 위협이나 징후는 없었다"며 "그러나 신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회 측에 방문자들이 입장할 때와 교회 문을 닫을 때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국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이번 테러는 영국의 모든 교회를 향한 경종"이라며 "기독교인은 두려움을 거부하고 담대함과 자유를 추구하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 폴 로빈슨 대표는 "테러리스트들의 의도는 증오와 분열을 일으켜 기독교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보통 신자들의 삶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증오를 거절하는 것"이라며 "용서와 사랑은 계속돼야 한다.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종교계의 분열 차단을 위해 대통령 궁인 엘리제궁에서 앙드레 뱅 트루아 파리 대주교, 달릴 부바쿠르 프랑스무슬림신앙위원회 회장 등 가톨릭과 기독교, 유대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회동하고 교계의 단합을 요청했다.

IS, 교황도 테러 표적… "지체없이 기독교인 공격하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교황도 테러의 표적이라고 선언했다.

IS는 지난 31일 온라인으로 유포한 영문 선전잡지 다비크 15호에서 기독교에 대한 테러를 부추겼다. 다비크 표지에는 '십자가를 파괴하라'는 제목과 함께 IS 깃발을 든 한 조직원이 교회로 보이는 건물의 지붕에서 십자가를 떼어버리는 사진이 실렸다.

IS는 잡지를 통해 "서방의 숨은 전사들은 지체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라"며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를 지시했다. 또 외로운 늑대에게 미국 올랜도, 프랑스,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테러를 참고하라고 예로 들었다.

잡지에서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서양의 민주주의 이교도들은 서방인에 대한 무슬림의 적개심과 증오를 곰곰이 숙고해보라"며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도 무슬림에 대한 적의를 선의의 베일에 숨겨 속인다며 교황도 테러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는 '이슬람 대 서방종교'라는 종교 전쟁의 구도로 몰고가려는 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CA, '동성애' 공립교 수업과정 만장일치 채택

최근 캘리포니아(CA) 주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립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권익 운동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에 대해 역사 수업, 사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결정은 동성애 운동가들을 역사적, 사회적 위인(偉人)으로 가르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학년부터 12학년을 가르치는 공립학교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 이 속에는 성소수자 부모에 관한 내용도 들어간다. 4학년이 되면 역사 수업 시간에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역사를 배우게 된다. 특히 동성애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하비 밀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하비 밀크는 1977년 동성애자 가운데 최초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돼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를 역임했다. 그의 인생을 다룬 영화 "밀크"가 나올 정도로 그는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5월 22일을 하비 밀크의 날로 지정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돼 있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7. 윤병구

윤병구는 1870년 말이나 1880년 초에 서울 또는 경기도 양주에서 윤성형의 독자로 태어났다. 그는 1905년경까지 우병길로 활동했다. 일찍이 부친을 여윈 그는 숙부 밑에서 성장했고, 배재학당에서 이승만과 함께 공부한 것 같다. 1897년 5월경 한성사범학교 본과 2년제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선교사 통역인으로 활동했다. 윤병구는 본 학교교사 호머 B. 헐버트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고, 1897년 조지 H.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1899년 2월 존스 선교사의 신학회에서 배웠을 것이다. 본 신학회는 매년 서울과 평양에서 권사와 전도사를 양성하였다. 그는 하와이로 이주하기 전 C. G. 하운셀 선교사와 W. G. 크램 선교사의 조사였고, 개성의 남감리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그는 참된 기독교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려는 생각을 지녔다.

하와이

윤병구는 1903년 10월 하와이에 도착한다. 그의 부인과 아들은 이듬해 하와이로 왔다. 그는 G. L. 피어슨 감리사와 협력하여 한인들을 전도했고, 피어슨의 후임 J. W. 와드만 감리사의 통역으로 선교활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윤병구는 다른 전도사의 대부분과 같이 지방회 목사 교육반에 적을 두고 1년급으로 홍치범, 현순, 이경직, 민찬호, 김영식과 함께 공부했다. 그는 1906년 호놀룰루교회의 '코리안 크리스챤 애드보커트' 의 편집인을 역임했다. 1906년 5월 윤병구는 하와이 각처 한인교회의 엡워스 청년회 대표들과 함께 엡워스 친목회를 결성하여 한국에 전도인을 두기로 결의했다.

1903년 8월 호놀룰루에서 한인들의 지식 개발과 교육과 상업 촉진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해 신민회가 결성되었을 때, 윤병구는 홍승하 등과 함께 중심인물이었다. 신민회가 이듬해 4월 해산되면서 다음 달 에와친목회가 결성되고 항일운동, 일화(日貨)배척, 동족간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목적할 때 윤병구도 동참했다.

북미 대한인애국동지대표회의

1905년 7월 그는 이승만과 함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러일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보장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해 11월 상항에 도착하여 공립협회에 가입했다. 이때 주미일본공사 고평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는 나라이고 을사조약은 평화스럽게 체결되었다는 망언을 했는데, 윤병구는 12월 15일 상항의 신문기자들을 불러 을사조약은 일본의 창날에서 이루어졌고 보호논리는 합병의 계책이라고 반박했다. 1906년 5월 윤병구는 호놀룰루에서 국권회복에 대한 한인들의 안목 계발과 지식 도모를 목적으로 '시사신보'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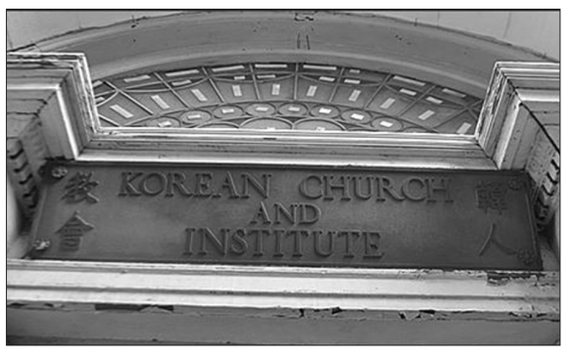
하버드

1906년 가을 윤병구는 하버드대학 문과에 입학하는데 그의 재학기간은 길지 않았다. 이 무렵 본 대학생 이승만과 교재를 이어갔다. 1908년 윤병구는 이상설 등과 유럽 순방을 하였고 블라디보스톡의 해조신문은 윤병구의 활동상을 치하했다. 그해 7월 북미대한인 애국동지대표회가 덴버의 그레이스감리교회에서 36명이 모여 개최되었을 때 그는 영문서기를 맡았고 개회식에서 '동양에 대한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상항

리들리 장로교회

1909년 12월 윤병구가 양주삼에 이어 상항교회에 부임했고, 이때부터 상항교회의 잡지 '대도' 주필을 맡는다. 그해 성탄절에 한인 60여명과 미국인 30여명이 참석하여 성탄을 축하했다. 이듬해 2월 본 교회 청년회는 멕시코 한인교회를 매달 돕기로 결의했는데 그달 황사용의 선교 보고 후 유카탄교회에 30원을 연조하였다. 상항교회가 보조하는 북간도 이화춘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 교우가 4, 5백명에 이르렀다. 1910년 9월 오화렐 스트리트로 예배당을 옮긴 후 윤병구는 1910년 성탄절 '사람다운 사람, 나라다운 나라, 세계다운 세계 건설을 꿈꾸기를 주문했다. 이듬해 2월 이대위가 부임할 때까지 모든 방면에서 전진했고 활력이 넘쳤다고 W. 엑톤 감리사는 그를 회상했다.



뉴욕한인교회

이듬해 그는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가 만든 '한일합방반대를 위한 근고문'을 한인사회에 배포했다. 다음 달 상항 한인들이 합방반대 특별회를 개최할 때 그는 임시의장으로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애국동맹단을 결성하여 그는 외교원으로서 합방반대를 위한 취지서와 청원서를 대한제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제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9개국에 발송했다. 윤병구는 야학을 열어 영어를 가르쳤고, 60여명의 한인 어린이에게 한글과 한국사를 가르쳐 민족정신을 각성키 위해 1910년 11월 상항한인교회 내에 대한소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1912년 11월 최정익에 이어 국민회 제2대 중앙총회장이 되어 각 지방의 한인을 순방하여 3·1 독립정신을 북돋웠다.

미국 서부

윤병구는 가족과 함께 1911년 상항을 떠나 오레곤 주로 이주했다가 1914년에는 워싱턴 주로 이주했다. 특별히 워싱턴 주 위니치에서 '한인교육회'를 설립해 한인 학생들에게 농공 분야의 실용 학문을 장려하였다. 1919년 3월 윤병구는 정인과와 함께 국민회 교섭위원이 되어 각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독립에 대한 동정여론을 일으켰다. 다음 달 이승만과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서 주최한 제1차 한인회의가 그를 일본과 미국에 보낼 청원서 작성자의 3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3.1운동 이후 그는 중앙총회장에 재선되면서 김종림과 함께 윤병구가 윌로즈 한인비행학교를 계획했는데 1920년에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에 의해 본 학교가 설립됐다. 이듬 해 그는 김종림, 홍종만 등과 함께 유니온 식산회사를 세우기까지 그의 조국 사랑과 한인 사랑은 남달랐다.

하와이부터 상항, 오레곤, 워싱턴, 뉴욕, 가주 등서 사역
한국 독립운동에 앞장...하버드대에서 만난 이승만 후원

윤병구, 부인 아그네스 오, 아들 프랭크

윤병구는 중가주 리들리로 이주하여 250에이커의 땅에 수박농사를 시작했을 때인 1922년, 미국 남감리교 순행목사인 임정구 등과 함께 감리사 윌리암 A. 데이비스 목사의 지도로 리들리 한인감리교회를 설립하고 파트타임 교역자로 재임한다. 1923년 현재 57명이 출석하였고, 이듬해에는 그 반인 20명이 출석했다. 윤병구는 1925년에 본 교회를 사임했다.

윤병구는 국민회 다뉴바 지방회에서 중앙총회장으로 연설을 하거나 지방외교원으로 활동했고, 1921년 다뉴바한인교회에서 42명의 한인들과 함께 시사연구회를 조직했을 때 회장이 되어 임시정부를 개조하려는 국민대표회를 반대하고 이승만과 임정을 지지했다.

뉴욕

김영섭 목사가 사직한 지 4년 후인 1929년 9월 윤병구는 뉴욕한인교회의 제3대 목회자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목사안수를 받았다. 당시 뉴욕한인교회는 컬럼비아 대학생 등 유학생 교회였다.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궁핍했고 1932년과 1933년에 자녀 조와 사라가 사망하면서 1936년에 본 교회를 사임했지만 1939년까지 본 교회에 출석했다.

1931년 11월 뉴욕한인들이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한 한인의 성명서'를 발표할 때 그 중심이 윤병구였다. 1931년 12월 컬럼비아 한인 대학생들이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재미조선문학회'를 조직할 때도 그는 이사로서 후원했다. 이듬해 2월 국민회 등의 이름으로 일본의 만주침략을 항의하는 결의문을 미국 후버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의 동참을 예상할 수 있다. 그는 J. 헤인스 목사와 함께 1934년 뉴욕에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와의 결혼식 주례를 맡을 만큼 이승만과 가까웠다.

가주

윤병구는 나성의 한 조선소에 취직하여 1939년 말경 가족과 함께 나성으로 이사했다. 그는 1946년 4월 리들리한인장로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는다. 1949년 한국에 갈 때까지 나성과 리들리를 왕래하면서 본 교회를 섬겼다. 본 교회는 1936년 신사참배문제로 미국 남감리교와 충돌하자 1939년 미국 북장로교 총회 총무 페인 박사를 초청하여 새 예배당 헌당식을 가진 후 센호킨 노회에 가입하였다.

윤병구는 대동아 전쟁 중 '한족출정 군인친족회'를 결성하여 한인 미군들을 후원하였는데 한인의 애국심을 통해 임정 승인과 한국 독립까지 내다봤다. 교회의 영문 잡지 The Star Exponent를 매월 손수 출판하여 미국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가 하면 국제연합기구 창설을 위해 57개국이 1945년에 상항에 모였을 때 임정대표단의 교제부장과 재정검사원으로 한국의 형편을 선전했다. 광복이후 그는 나성에서 동지회 북미총회의 선전부장으로서 동지회의 발전과 이승만의 정치활동을 후원하는데 주력했다.

1949년 3월 윤병구는 한국으로 간다. 외무부와 공보부의 고문에 임명된 그는 해외 한인들을 격려하고 48개 우방국과 친선외교를 펼쳤다. 한미협약의 초안 작성에 몰두하다 6월 20일 아침 소천할 때까지 그는 조국을 사랑했다. 조국은 1949년 6월 24일 새문안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그의 장례식을 치렀고,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해 그의 공적을 선양했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44)

이진희 목사

오늘날과 다른 의미로 사용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1. 달란트와 재능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는 헬라어로 '탈란트'(talant)이다.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talent(재능)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긴다. 여기에서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뜻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신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를 뜻하는 용어였다. 거기에는 '재능'이라는 뜻이 전혀 없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마 25:15).

여기에 "재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리고 달란트라는 단어도 나온다. 재능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다. 오늘날은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 재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dunamis)이다. '능력'(ability)이라는 뜻이다. 주인은 능력에 따라 다르게 재산을 맡겼던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재능'으로 번역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이 아니다.

2. 두나미스와 다이나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두나미스이다. 두나미스는 위에서 말한 대로 능력을 뜻한다.

산도 무너뜨리고 바위도 깨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다이너마이트이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된다.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이너마이트를 연상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3. 증인과 순교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스데반에 대하여 사도행전 2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And when the blood of thy martyr Stephen was shed, I also was standing by, and consenting unto his death, and kept the raiment of them that slew him"(KJV).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개정).

영어 성경(KJV)에서는 스데반을 순교자(martyr)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순교자와 증인은 다르다. 예수를 증거하다 순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인이라고 다 순교자는 아니다.

여기에서 증인 또는 순교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martus'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증인이다. 법정에서 증거하는 증인을 말한다. 또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martus가 후에 martur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martyr(순교자)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서 '증인'으로 번역한 것을 '순교자'(martyr)로 번역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설교할 때, 이 구절에 나오는 '증인'으로 번역된 martus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르투스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단순히 '증인'이라는 뜻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후대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영어 성경(KJV)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martus를 모두 순교자로 옮겼다(계2:13, 17:6).

"I know thy works, and where thou dwellest, even where Satan's seat is: and thou holdest fast my name, and hast not denied my faith, even in those days wherein Antipas was my faithful martyr, who was slain among you, where Satan dwelleth"(계2:13).

"And I saw the woman drunken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martyrs of Jesus: and when I saw her, I wondered with great admiration"(계17:6).

우리 성경에서는 순교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되어 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계2:13).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계17:6).

요한계시록은 늦어도 1세기 말에는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기독교 저적물들을 보면 아직까지 martus가 순교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martus는 문맥으로 보면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는 '순교'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처럼 '증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jinhlee1004@yahoo.com

〈끝〉

청교도 신앙 (12)

청교도들의 예배 (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성경적 원리와 근거에 합당한 예배갱신으로 통일성 이뤄야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
미신자의 예배 참여는 구경일 뿐, 참된 예배자 될 수 없어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청교도 신앙을 기초로 하는 개혁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교단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져가고 성경적 예배 중심보다는 교회 성장 중심의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로 바꾸어지면서 예배의 틀도 변화되게 되었다. 교회 연합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순수한 실천적 청교도 유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예배 형식과 삶에 있어서 장로교회만의 아름다운 색채를 찾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교회의 예배가 무엇보다 청중의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가는 예배로만 바뀌어지는 것은 현실과 문화의 적용이란 차원을 떠나서 예배의 모습이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예배에 대해 교회사적으로 추구해 나아갈 때,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위한 전형으로 우리는 청교도들의 예배를 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청교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원리와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서 오덕교 교수의 "청교도와 교회개혁", "언덕위의 도시", 서청원 교수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 힌슨(Edward Hinson)의 "청교도 신학"과 그 외의 자료들을 인용하여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청교도 예배의 원리

1) 예배의 통일성

청교도 예배는 무엇보다 예배의 통일성에 강조점을 두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예배 형식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통일된 예배 형식이 없어지는 때에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보편적 교회의 통일성이 사라지고 개교회 중심의 예배의식이 뿌리 깊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필요로 한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서는 예배 모범이라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실제 목회현장에서는 예배의 실용적인 변형에 익숙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는 다시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 예배의 통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예배 지침을 작성할 때 서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물려받아 자신들의 양심과 다른 개혁교회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통일된 공예배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고 의지하며, 혈과 육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많은 예전과 의식들을 겸비하고 있었던 이전의 예식서(liturgy)를 폐지하고, 일상적인 때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될 공예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다음의 지침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 지침서에서 공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와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들로, 깊이 생각하고 정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예배의 갱신을 말하는 자들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와 근거를 내세우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현실적 요구사항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과거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예배의식이 오늘날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하면서 정지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올바른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2) 성경적인 예배

가)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는 어떠한가?

올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개혁파 장로교회가 지켜온 예배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 예배가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동원한 예배이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희열을 느끼며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중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으로서 예배자의 느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는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예배의 핵심은 당연하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나)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뿐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에게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한다.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다) 그러면 미신자들이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미신자들이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을 헤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자들은 미신자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신자와 미신자를 물론하고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풍성히 나타내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신자의 예배 참여는 구경하는 것일 뿐,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

3)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예배는 규정적으로 정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적인 면에서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적인 예배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역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이것이 청교도들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중시했던 이유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송영과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의를 표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 목사인 스데반 차녹(Stephen Charnock)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예배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행동이다 또한 예배는 의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혹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용하며, 이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다"

이런 일상생활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교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기독교 생활, 기독교 문화를 이루는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맞는 구별된 삶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성경의 교훈에 충실한 문화를 창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로부터 기독교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보물찾기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도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그리운 것들이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전날 밤은 참 가슴이 설렜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소풍날이면 빠짐없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이다. 선생님들이 돌 밑이나 나무껍질 틈새에 숨겨놓은 종이쪽지를 찾으려 정말 무슨 보물인양 침을 꼴깍 꼴깍 삼켜가며 온 산을 뒤지곤 했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이제쯤은 내 삶 속에 감추어진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 삶속에서 찾고 찾아야 할 보물은 내 안에 계신 신성을 만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신성이 내 속의 죄성과 싸움으로, 오늘도 나는 넉넉히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에 절어서 또 자신을 초조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 초연하지 못하며 살고 있으리라.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싱싱해야 할 삶들이 잔뜩 주눅이 들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상처로 인해 텅 빔, 꼬임, 약함으로 꽉 찬 우리의 내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람들의 취급에 따라 이리 저리 떠다니는 겨가 되어 방황하는 것이리라. 쭉정이의 텅 빈 공간은 신성을 향한 갈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신성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이다.

어떤 사람은 첫눈을 보고도 봄날의 첫 잎사귀를 보고도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 안녕하세요?"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짜증스럽게 대하던 자녀도 남편도 우리 종업원들도 다 하나님? 우와...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진리이리라. 이런 진리를 가슴에 담는 자는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런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들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우린 꼭 살기 좋은 일이 있어야만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웃고 나면 살기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고 그냥 웃어보자. 누가 어떻게 해줘서가 아닌 그냥 생명으로부터 오는 웃음, 그것이 주님 한분만으로 라는 고백이요 내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기쁨이리라. 그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행복하지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그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리라.

아이들은 한 대 줘 박으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사탕 한 알을 주면 금방 웃는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한번 울면 온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생각해서 계속 속이 아프다. 왜냐하면 가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요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사는 자들이리라.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자'라는 약속을 잊어버려 서로 멀뚱히 쳐다보다가는 먼저 생각난 쪽이 갑자기 '으하하하...' 웃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너무나 멋쩍어서 얼굴이 일그러진 웃음을 웃는다. 그렇더라도 우린 그 일그러진 표정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는 어색함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어느새 행복도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불러보자. 그 순간 우린 가슴에서 울컥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내 안의 하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만의 보물을 찾고 만난 감격이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이 감격을 담은 가슴으로 올 남은 날들을 살아가리라.

changsamo1020@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목회서신

127시간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3개 부문 골든그로브에 노미네이트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애런 랠스턴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산을 자기 집처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즐겼던 유타주에 있는 Blue Zone Canyon을 산악자전거를 타고 혼자 누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혼자서 계곡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는 조난을 당합니다. 협곡에 미끄러지면서 함께 떨어진 작은 바위에 팔목이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협곡에 낀 바위와 팔목은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점검합니다. 산악용 로프와 중국산 칼, 그리고 500ml의 물, 전등과 캠코드가 전부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서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칼을 써서 바위에 틈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줄을 써서 움직여 보려고도 합니다. 결국 자신이 처한 환경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누가 없냐고 죽을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행복했던 꿈과 절망적인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갔습니다. 힘이 빠지고 물이 다 떨어져갔습니다. 그는 결국 절망하고 맙니다. 캠코드에 자신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가 이 캠코드를 발견하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쳐서 잠들었던 그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위에 낀 자신의 팔을 보니, 이미 오랫동안 피가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써서 뼈를 부수고, 무딘 칼로 자신의 팔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 한쪽 팔을 남겨두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조난을 당한 후 팔을 포기하고 구조되기까지의 시간이 영화의 제목인 '127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잘 안다고 믿고 있는 것에서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를 만나면 먼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는 참 된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대부분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고 맙니다.

고난과 낙심, 절망 밖에는 할 것이 없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아무런 내적인 힘과 외적인 도움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팔목이 지금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런은 자신의 팔목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낙심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해봐도, 도와달라고 목놓아 부르짖어도 때로는 고난과 낙심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의 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끝까지 움켜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무엇을 포기할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信仰)'을 영어로 'Faith'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Forsake All I Take Him'이 됩니다. 즉 "나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포기하고) 그(Jesus,예수님)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救世主,Savior)로 믿고, 의지하고, 내 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잘 한다고,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므로 위기에 처했을 때,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찾는 신앙인이 됩시다.

jaekunlee00@hotmail.com

ITS가 주최한 기독교신앙과 영화읽기 주제 특강에서 이재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ITS 기독교신앙과 영화읽기 주제 특강

강사에 아이교회 담임 이재근 목사

ITS(총장 이승현 박사) 한국어학부가 주최한 기독교신앙과 영화읽기 주제 특강이 1일부터 5일까지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재근 목사(아이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첫날강의는 '대중문화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재근 목사는 "대중문화는 대중의 '신'과 로고스를 영웅과 아이콘을 통해 그려내는 신화 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신화가 그러하듯, 존재의 근원과 운명 등과 같은 공통 관심사를 드러내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대중문화가 가진 신화적 기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부산행'이란 영화는 노숙자들 속의 좀비 얘기를 다룬 단편영화 '서울행'을 발전시킨 것"이라 설명하며 "좀비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영혼 없는 존재다. 20세기 초에 시작돼 지금까지 좀비를 다룬 영화들은 꾸준히 반응이 있어왔다. 좀비는 생각 없이 살고자 하는 현대인의 단순성이며 인육을 뜯어먹기 위해 몰려드는 것은 다른 이들을 물어뜯는 현대인의 모습"이라 설명했다.

이 목사는 "교회에서 문화이야기를 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영적인 것은 영화를 보면서, 문화를 접하면서, 명확한 이성적 판단을 갖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대중문화는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직시해야 하며 이 점에 대해서 신학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의 후에는 1989년에 개봉된 영화 '몬트리올 예수'를 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화요일은 '영화의 이해', 수요일은 '기독교 영성과 영화', 목요일은 '한국영화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미학적 신학하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미션', '슈렉', '변호인'을 관람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근 목사는 서울 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를 거쳐 영화와 신학 분야로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Ph.D Candidate)에 있으며, 현재 북가주 팔로알토에 위치한 아이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인가정상담소 올해도 5만 달러 기금확보

정부혜택 사각지대 한인가정에 무료상담 제공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카니정조 소장은 "최근 한 독지가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만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후원금을 지난해 시작한 R.O.C.K 카운슬링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R.O.C.K 카운슬링 기금은 2015년 6월 익명을 요구한 한인 후원자가 5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를 R.O.C.K 카운슬링 기금(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회복이 필요한 한인 가정을 위한 기금)이라 명하고 △서류미비자 △가정폭력·사회범죄 피해자 △저소득층 △무보험자 등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료 및 낮은 비용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카니정조 소장은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달라고 큰 기금을 마련해준 후원자께 감사드리며, 한인가정상담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는 한인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한인가정상담소로 전화(213-389-6755)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예약하면 된다.

▲문의: (213)389-6755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LA 군사랑선교회 주관 7월정기모임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신태훈 요르단 선교사

LA 군사랑선교회 7월 정기예배

설교 및 선교보고 신태훈 선교사

한국 해군군목 출신 신태훈 선교사(요르단)가 7월 30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강당에서 열린 LA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회창 목사) 7월 정기 모임 예배에서 선교보고 설교를 했다.

신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중동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한편 LA 군사랑선교회는 한국 군인들을 특별히 사랑해 정기적으로 모여 중보적 사역을 하는 이민 선교단체로서 금번 사드 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위한 기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월 마지막 토요일 11시에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LA 군사랑선교회〉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그러나 삼손이 힘을 잃은 근본 원인은 머리털을 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일순간 믿음을 상실하고 큰 시험에 사로잡혀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개는 재창조능력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매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의 비참한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리석고 비참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죄를 깨달은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힘을 얻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를 열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자 그에게 다시 능력이 돌아와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다시 과거의 큰 힘을 회복하여 살았을 때 죽인 자 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삼손은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였지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므로 권능을 덧입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실수로 죄에 넘어지면 온 가족이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 단체의 지도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 단체에 구성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유혹에 넘어져서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포탄 맞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깊이 인정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유혹의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eedaewoo19126@gmail.com

기/자/수/첩

박준호 기자(LA)

공식적인 취재요청은 SNS 보다는 공문으로

교계기자로 활동하면서 주로 하게 되는 것은 교회와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행사취재와 기자회견, 그리고 인터뷰다. 한 해 동안 열리는 행사들은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교협, OC교협에서 각각 주관하는 3.1절 기념예배나 6.25예배 등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한 기도회, 다민족기도회, 남가주교협이나 목사회, OC교협 등 교계단체들의 총회 혹은 이취임 예배 등이다. 그 외 목사안수식이나 개 교회 설립 및 임직식 등 수많은 행사들을 취재하게 된다.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 광고홍보나 취재를 의뢰받을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어김없이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팩스로 의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시스템이 과감히 생략이 되고, 내 핸드폰에 설치된 쇼셜네트웍서비스(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왠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밀려옴을 느끼게 된다.

10년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단체의 행사를 알리는 요청을 문서를 통해 받았었다. 즉 공문을 통해 받게 되고, 그 공문을 토대로 취재계획을 세우고 현장취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과정은 모두 생략된 채 행사당일아침 혹은 전날 늦은 밤 시간 핸드폰에 설치된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수년전 행사당일 전화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취재요청을 받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모 언론사 기자가 이 점을 지적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한때 이러한 점이 시정이 되는 듯 했지만 해가 지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하지만 요즘 이루어지는 행사당일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한 취재요청은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지만 애교로 봐줄 만 하다. 하지만 SNS를 통한 통보는 도가 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SNS를 사용하는 것은 신속 정확한 전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테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공적인 관계가 배제된 100% 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취재요청은 해당 기자가 아닌 그 기자가 속해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취재의뢰의 우선순위는 기자의 SNS가 아닌 기자가 소속된 회사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행사취재를 의뢰할 때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로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가 취재현장에 나타날 때는 언론사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관계라 할지라도 사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취재현장에서만이 아닌 취재를 요청하는 그 시간부터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전해준 명함에 있는 이메일은 대부분 언론사 이메일이다. 이 이메일은 괜히 적혀있는 것이 아니며 이메일을 통해 우선적으로 취재요청이 들어가야 한다. SNS는 이미 소식이 전달된 후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취재의뢰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그 행사의 질을 현저히 낮추게 될뿐더러 행사요청을 한 교계단체의 공신력을 의심하게 되는 역효과만 내고 말 것이다. 설령 그 행사가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공문을 받지 않았을 때 혹은 어떤 장소에서 문서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SNS를 통한 취재요청은 응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취재요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통해 접하게 되는 몇몇 단체의 행사취재요청은 해당기관에서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행사공문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목사회 등 교계단체의 찌라시성 요청보다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기본을 지켜서일 것이다.

la@chpress.net

동부교계 게시판

east

기독문화사역자 구함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에서 '기독문화사역'에 비전을 갖고 전반적인 행사기획과 기독문화 창출에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자를 찾고 있다. 사역내용은 청년 컨퍼런스와 수련회 기획과 콘서트 행사기획. 연령제한이나 남녀 구분은 없다. 이메일 usallm2020@gmail.com

▲문의: (646)258-4161

'2016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3차 준비기도회

오는 9월 18일(주) 오후 8시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메인홀에서 열리는 '2016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3차 준비기도회가 8월 11일(목) 오전 11시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기독교방송 CBSN(대표 문석진 목사)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서울장로성가단, 인천장로성가단, 코랄카리스합창단, 익산장로합창단, 시카고장로합창단, 프라미스교회 성가대, 뉴욕장로성가단,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미주웨슬리연합합창단, 뉴욕교회연합합창단 등 10개의 합창단이 공연하며 행사수익금은 장애인과 노숙인구호 단체에 전달된다.

▲문의: (347)538-1587

복음적 설교, 군더더기 없는 진행-

뉴욕교협 2016할렐루야대회 사후 평가회

뉴욕교협이 7월 15일부터 사흘간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치러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마치고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평가회는 서기 한준희 목사 사회로 임원들과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비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를 전도대회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려고 했으나 강사 사정 등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며 "대회날짜 또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카네기홀 공연 때문에 폭염 속에서 하는 등 악조건이었지만 대회를 위해 협조해준 준비위원들과 회원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설교는 복음적이고, 진행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고 평하고, 준비과정에서는 준비위와 총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또 강사 접대나 예배 순서진행, 안내, 주차관리, 찬양순서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계획 따로, 행동 따로'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가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하 총무, 이만호 준비위원장, 이종명 회장, 김홍석 부회장, 한준희 서기.

차량운행은 첫날만 제대로 진행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1대만 움직였다고 보고했다.

연합행사에 비협조적인 회원교회에 대해서는 양심, 인격에 맡겨야 하며 강력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의견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대회를 마치고 큰 교회(개최장소)로 교인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으며, 대형교회를 순회하며 사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종명 회장은 1세대 목사들이 많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들은 연합사업에 대한 열의가 적다고 말했다.

김홍석 부회장은 안 모이는 것은 리더십의 문제라며 임원이나 실행위는 관계를 잘 갖는 사람들로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하 총무는 장기플랜이 필요하며 교협은 사업일정을 미리 발표해서 행사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희 서기는 교협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준비위원장은 성숙의 문제라며 사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 이사회는 정오부터 알리폰드 파크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고 대회를 위해 수고한 진행팀을 대접했다.

이상호 이사장은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됐다"며 "열심히 참가해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한다. 즐거운 오찬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다.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선교회 주최, 퀸즈장로교회에서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주최로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로 제 10회를 맞는 이 음악회는 김성국 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돼 테너 김충구, 메조소프라노 박영경, 바리톤 이요한, 소프라노 최경순, 퀸즈장로교회 G2G 어린이합창단, 오보에 연주 이정석, 첼로 연주 에스더유, 퀸즈장로교회 Blessing Choir, 연합중창단 등이 공연했다.

연주회 중간에 강재희 양(퀸즈칼리지 2학년)과 안진환 군(버룩칼리지 4학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새생명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심의례 전도사는 "암 전문의였던 남편이 소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암환자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암 환우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금년부터는 암 환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부모가 없거나 미혼모 자녀들에게도 적지만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콜롬비아 단기선교팀 파송식 겸해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7월 월례회에서 콜롬비아 단기선교 파송식을 가졌다.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월례회에서는 오는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 CDP센터(책임자 김혜정 선교사) 단기선교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단원들을 위해 파송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설교 양승호 목사, 합심기도(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 결연아동, 선교사들, 단기선교팀 일정을 위해), 축도 이희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는 "무조건 감사"(시 39:7-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도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하면서 정작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며,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감사해야 할 이유는 "첫째,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둘째, 나그네 인생의 본향은 결국 천국이다 셋째, 사명을 주셨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29년 목회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최근 2-3년새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이 영적 교만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향적 목회를 하려고 한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선교하는 단체다. 이 사명을 깨닫는 감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희수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단기선교 진행보고와 행정보고&광고, 파송기도가 이어졌다.

이찬양 간사는 이번 단기선교 준비물로 아동선물과 후원아동 가정방문 시 선물, 의약품 후원(유정근 장로), 집짓기(페루 4채, 콜롬비아 1채), 모기장(200개), 물탱크(10가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상열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콜롬비아 단기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며, 선교팀(8명)은 8월 10일 최종 모임(기쁨과 영광교회)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파송기도는 참석자 모두의 통성기도 후 양승호 목사가 마무리했으며, 박성원 목사의 폐회기도, 허윤준 목사의 친교기도로 모든 순서로 마쳤다.

현재 동 기구의 후원아동은 해외 184명, 북한 10명 등 총 194명이다.

한편 8월 월례회는 25일(목)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이 플러싱 메인스트릿 도서관 앞에서 대대적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플러싱서 대대적 노방전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31일 주일 오후 5시30분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에서 대대적인 노방전도를 펼쳤다.

150여명이 참가한 이 노방전도에는 퀸즈장로교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권 회중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별히 글로리아싱어즈의 찬양과 그레이스무용팀의 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도폭발 팀이 전도지를 나눠주며 일대일 전도를 실시했다.

또 중국어회중과 영어회중 담당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등 1시간여 공연과 메시지 전파가 이어졌으며, 우천으로 인해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예정에 없던 담임 김성국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며 뜨거운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중국어로 동시 통역됐다.

김성국 목사는 "인생의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자"고 강조하고 "이민자로 미국에 온 우리 모두는 잠깐의 성공 아메리칸 드림보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의 환란 죄악 유혹 죽음 모든 것에서 피할 길인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역설했다.

해외 선교 뿐 아니라 지역내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퀸즈장로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어회중 교회를 시작했고, 올해는 러시아회중 교회를 시작했다. 한 지붕아래의 4교회로 현재 영어회중 450명, 중국어회중 200명, 러시아회중 3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제_강사 이찬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2016 여름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16 여름성령축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삼하9:6-8)'라는 주제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16여름성령축제에서 강사 이찬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둘째 날 '성령은 사랑의 열매입니다'(갈5:22-2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찬수 목사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설명해놓아서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각각 아홉 가지가 아니라 하나이며 한 열매에 9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이 규정을 짓기를 보혜사라고 하셨다.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의식한다면 부정적인 말투, 불만 불평등을 함부로 하는 것이 성령님을 모시는 자의 행동양식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성령축제 첫날(목) 저녁집회는 '신뢰와 행복'(스3:10-13) 셋째 날 오전은 '칠년 동안'(삿6:1-6), 오후는 '예수님의 쉼터(눅10:38-42)', 그리고 넷째 날 집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삼하9:6-8)라는 제목으로 이찬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기적콘서트4가 윌셔이벨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적콘서트4, '감사해_ 덕분에' 주제

A3M아시안골수기증협 창립25주년 유스타미디어 주최

A3M아시안골수기증협회 창립 25주년 미라클 기적콘서트4가 유스타미디어(대표 박상균) 주최로 28일 오후 7시30분 윌셔이벨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감사해... 덕분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더클래식 김광진 씨와 토이 객원싱어 김형중 씨가 출연해 '여우야', '사랑의 서약', '좋은 사람' 등을 불렀다.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지적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 그리고 바이올니스트 이선정 씨가 특별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빛냈다.

또한 박상균 씨가 수어찬양사역자 김은정 씨의 수어에 맞춰 노래했다. 특별히 김지희 씨가 'Isn't she lovely'를 연주할 때는 이선정 씨가 바이올린연주로 합주를 했으며 위대한탄생2 출신 애슐리윤 씨가 연주에 맞춰 노래하고 수어찬양사역자 김민경 씨가 수어로 노래해 청중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이날 김광진 씨는 "좋은 뜻의 공연에 참여해서 기뻤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적콘서트는 카지노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정상급 한국가수들의 공연범람으로 한인커뮤니티 공연문화계에 급속도로 병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타운에 희망을 노래하자는 취지로 유스타미디어가 지난 2014년 8월 '기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어왔다.

이 콘서트는 특별히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를 도와온 아시안골수기증협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시안골수기증협회 25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또한 지난 5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잇는 샌프란시스코 거주 애슐리 NG(3세) 양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과 맞물려 진행됐다.

박상균 유스타미디어 대표는 "기적콘서트는 노래만 부르는 콘서트가 아닌 나눔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콘서트"라며 "콘서트는 한국과 로컬에서 수준급 뮤지션들을 출연자로 초청해서 열고 있다. 관객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콘서트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나눔이라는 취지에 가수들과 스텝들이 취지에 동참하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숭실OB남성합창단 정기공연이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LA숭실OB 남성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LA숭실OB 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 제 24회 정기연주회가 7월 마지막 주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남가주숭실중고등학교 동문회(회장 이재한)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시편150편', '시편23편',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 등 성가곡과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서른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등 김광석 메들리, '슈베르트의 자장가', '언덕 위의 집', '백만송이 장미' 등 외국곡, 그리고 '도라지꽃', '님이 오시는지' 등 한국 포크송 등 네 개의 무대로 진행됐으며 '한계령'과 '평화의 기도'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막을 내렸다.

이날 연주회는 소프라노 황혜경 씨가 찬조 출연해 진정우 박사의 반주에 맞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고파'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한인들의 혜택을 위한 오픈포럼'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7월 28일 오전 10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한인들의 혜택을 위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오픈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은퇴를 앞둔 에드워드 비다우리 DMH 국장이 마지막 공식 행사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정신건강국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등을 설명하고 한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정영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코디네이터(M.S.W., L.C.S.W)와 이주호 코디네티어(L.M.F.T)가 나서서 LACDMH에서 제공하는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 주변의 우울증, 불안, 지나친 스트레스 등 크고 작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교육과정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을 추가 선발한다.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강 자격은 교계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 강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1부(8월12일-9월 2일)와 2부(10월19일-11월 9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dkim@kfamla.org

▲문의: (213)235-4848, 카카오톡 ID: KFAMLA

NPO 및 퀵북 강좌

LA 지역 NPO(비영리단체) 및 교회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적 회계 관리를 위한 퀵북(QuickBooks) 강좌를 8월 10일(수)과 1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컴미션 국제본부 1층 강의실(1520 James M. Wood Blvd, LA)에서 개최한다. 본 강좌의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준비물은 노트북 컴퓨터이며 비용은 100달러(강의책자 포함)다.

▲문의: (714)393-4595

차드 현지보고회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챠드 현지보고회가 아프리카 차드(Chad) 박근선 지부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7일(수) 오전 10시30분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 8111 Walker St)와 10일(수) 오전 10시30분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562)977-4580

제5회 위안부의 날 기념 작품전시회가 '옳은일을 행하라!'라는 주제로 이음카페에서 열리고 있다

제5회 위안부의 날 기념 전시회

14일까지 이음카페에서

제5회 위안부의 날 기념 전시회가 8월 1일부터 14일(주)까지 한인타운내 이음카페(3020 Wilshire Blvd #100, LA)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글렌데일시가 2007년 7월 30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하원결의안 HR121을 기념해 매년 7월 30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해 기릴 것을 선언했으며, 지난 2012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위안부의 날'을 지정했고, 2013년에는 중앙도서관 옆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다시 한번 존경의 뜻을 표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라(Do the Right Thing)'이라는 테마로 문화행사를 준비했으며 그의 일환으로 이음카페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동기, 이대철, 남희조, 한경자, 배윤환, 김시하 작가들이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거짓된 모략교리 가르치는 '신천지' 불신 씨앗으로 갈등과 혼란 부추겨"

한교연, 이단·사이비 규탄회견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교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사이비집단을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모략을 일삼는 신천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신천지는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모략교리'를 가르친다"며 "이를 통해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회에 불신의 씨를 뿌려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천지는 모략을 일삼아 가족 간에 서로 불신케 해 가정을 파괴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또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장길자를 신격화하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퍼트리고 있다"며 "죽은 안상홍이 88올림픽 스타디움에 재림한다며 전 교인이 표를 사서 입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님의 교회는 요즘 설문조사, 노트북이나 아이폰을 이용한 동영상 보여주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전도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방번개(전능신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사교(邪交)로 규정돼 포교활동이 힘들어지자 소수의 인원이 국내에 들어와 은밀히 활동하다가 서울 구로구에 건물을 매입해 전국적으로 포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강원도 횡성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매입해 집단 거주하며 포교활동을 시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강원도 횡성과 원주 주민들의 단합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교회 비판 1인 시위자 전원 무죄 판결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앞에서 여교주 장길자(73)씨와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했다가 고발된 1인 시위자 4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배관진 판사는 "헌법상 종교비판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하나님의교회 관련 세상종말,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인 시위자 4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김모(45) 강모(42) 조모(49) 서모(41)씨는 2014년 4월 서울 강서구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하나님의교회 때문에 이혼 가출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이모씨가 하나님의교회에서 나간 후 주변에 비방을 하고 다니자 이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씨의 4세 아들도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적이 있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며 시한부 종말론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님의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KBS, MBC, SBS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보도하려 했다"면서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씨는 "국민일보의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신도들 사이에서 가출 이혼 아동학대 현상이 벌어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2심에선 여교주 장길자와 김주철 총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들의 잘못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여성할당제 청원 1,053명 서명

예장통합 여교역자聯, 9월 총회에 전달

여성할당제 도입과 여성목사 안수 허용 등 기독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긴 안건이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채택될지 주목된다. 이들 안건은 총회에 지속적으로 상정돼 왔지만 통과된 교단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회장 이영숙)는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총회본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6일 청원의 건과 함께 여성목회자와 장로회신학대, 부산장신대 등 7개 신학대 여신학생들이 서명한 1053장의 서명용지도 함께 제출했다.

연합회 김혜숙 사무총장은 "2016년은 예장통합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결의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여교역자들이 개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남성 목회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역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단 내에는 담임목사로 여성을 초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 목회자를 상담과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만 사역하도록 한정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안건에는 여성총대를 비롯해 총회산하 위원회, 노회 등에서 여성위원 30% 의무화, 여성장로 30% 선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7개 신학교 여신학생들의 요청 사항에는 '여성관련 과목 개설 의무화' '각 신학교의 여교수 비율 증대' '각 교회의 여성 전임사역자 30% 의무화' 등도 담겼다.

김 사무총장은 "청원의 건을 낸 것은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을 막고 전도의 문을 넓혀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소수지만 남학생들도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지난 18-19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산하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예식 목사)에 이 안건을 검토한 뒤 총회 때 보고하도록 했다. 김예식 위원장은 "이전엔 여성할당제 등 여성 관련 안건이 산발적으로 총회에 올라왔는데 이번엔 총회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한 의견으로 통합해 보고하도록 했다"며 "전체 총대들의 분위기는 여성할당제에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성도의 60% 이상이 여성인 한국교회가 많은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교단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지난해 '여성총대 15% 비율 의무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몇 년 전 가장 먼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10명 이상인 노회는 여장로와 여목사 각각 1명을 총대로 파송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성목사 안수의 경우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이 허용하고 있다.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하던 예장백석과 불허하던 예장대신이 통합해 새로 출범한 예장대신에서도 지난해부터 여성목사 안수가 교단 전체로 허용됐다. 예장합동과 합신, 고신 등은 아직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동성애 처벌 □형법' 합헌 판결

교회언론회 등 "판결 환영" 논평

헌법재판소는 28일 동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구 군형법 제92조의5(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6으로 이동)에는 '계간(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결정은 군복무 중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해 "강제추행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그 밖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추행의 강제성 여부와 음란 행위의 정도와 객체, 시간,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해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011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교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논평을 내고 "만약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 군대 내 성폭력과 이로 인한 질병의 확산으로 군 전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군기를 유지시키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및 추행을 금지하는 군형법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며 치열해지고 있다"며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동성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철 목사 복권·복적 감사예배

예장합동, 77년 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1939년 12월 19일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키로 결의한 것은 성경과 신앙의 근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조와 교리 및 장로회 헌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잘못된 결정이므로 동 결의를 취소하고 무효화하여 주기철 목사의 성명을 당시 노회원 목사 명부에 원상태로 복적하고 목사직을 복권할 것을 선언합니다."(평양노회장 조은칠 목사)

31일 오후 주기철 목사의 복권이 선언된 서울 서초구 명달로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 예배당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400여 성도들은 주 목사의 순교정신을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일부 성도들은 순서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주 목사의 연보와 빛바랜 흑백사진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 목사)는 이날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복권(復權) 및 복적(復籍)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주 목사의 목사직 면직 77년 만에 '복권 및 복적 감사예배'를 갖고, 교단 역사에 주 목사의 목사직 복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제100회 총회 때 '주 목사의 복권 및 평양신학교 복적'에 대해 모든 총대가 기립박수로 가결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당초 지난 5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예배는 1939년 주 목사에 대해 권징을 결정한 옛 평양노회 관련 노회들의 주 목사에 대한 복권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교단 내 목소리에 따라 각 노회의 임시회를 거치느라 2개월여 지연됐다.

박무용 예장합동 총회장은 설교에서 "주 목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낸 앞서 가신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며 "이를 위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벗고, 고통 속에도 인내하며, 우리의 푯대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배에는 총회 임원과 장차남 길자연 전 총회장, 역사위원회 위원,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목사, 평양노회 관련 7개 노회장, 주 목사의 유가족 등 4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해 한국교회가 남긴 잘못된 결정을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신앙 선조의 명예가 회복되는 현장을 목도했다.

유족 인사에 나선 주 목사의 손자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목사는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바라볼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앞으로 역사위원회를 통해 주 목사님의 신앙유산이 다음세대에 전승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으로 200만 다문화인 품자"

다문화 tvM 개국...재정난 겪자 순복음선교회 대주주로

다문화 전문 케이블 및 인터넷 TV인 '다문화 tvM(이사장 이영훈 목사·회장 이태근 목사)' 개국 감사예배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예배에는 교계, 정치계, 언론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태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영훈 이사장은 '절대 지상명령'(마 28:18-20절)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인 200만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문화 tvM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배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신상진 나경원 홍문종 홍문표 이은재 이경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광온 김두관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tvM은 다문화 시대에 꼭 필요한 채널"이라며 "다문화인의 삶을 대변해 다문화 속에서 한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 방송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배려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상진 의원은 "tvM이 공용방송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롱 디망째 캄보디아 대사도 참석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문화적 다리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은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이 이미 다문화사회가 됐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시각이 열려있지 않다"며 "이를 해소하는 데 tvM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한국교회가 채워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다문화 tvM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국교회의 큰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예배는 길자연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다문화 tvM은 지난해 9월 한 개인사업자가 다문화 이해 및 융화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인을 돕기 위해 개설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재정난을 겪었고, 이 소식을 접한 목회자들이 채널 출범의 취지에 공감해 tvM을 돕기로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날 개국 감사예배를 드리며 재출범했다. tvM은 오는 9월부터 새롭게 편성된다. '다문화 뉴스'를 비롯해 다문화인 삶의 고충을 소개하는 '다문화 신문고', 다문화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 최초 건강장애 청소년 대안학교 '캔틴스쿨'

캔틴스쿨(Canteen School)은 소아암 등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초의 건강장애 청소년 대안학교다. 캔틴은 각각 암과 10대를 뜻하는 영어단어가 조합된 '캔서 틴에이저(cancer teenager)'의 줄임말이다. 건강장애란 암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주택가 속에 있다. 일반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외벽에 흰색과 연두색 페인트가 곱게 칠해져 있어 눈에 띈다. 홍대 인근의 2층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학교로 꾸민 건 허인영(50·서울 희망감리교회) 교장의 아이디어다. 면역력이 취약한 이곳 학생들의 특성 상 사람이 붐비는 고층 건물보다 단독공간인 가정집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봤다.

현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건강지원국장을 맡고 있는 허 교장은 캔틴스쿨에선 비상근으로 일한다. 사회복지사인 그가 학교를 세운 건 한 건강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허 교장은 백혈병·소아암 환우 가족을 위해 협회가 운영하는 쉼터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일했다.

'다락방' 문제 해결로 급진전… 9월 장로교단 총회가 관건

지난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쉼터에 들렀던 한 건강장애 청소년이 치료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은 것을 비관해 쉼터 건물에서 투신했다.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일이었다. '평소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없어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시달렸다. 이때를 회상하던 허 교장은 흐느끼며 말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게 낙이었는데 귀가 안 들리니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집과 병원만 오가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이때 굳혔죠. 설령 내일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오늘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학교를 만들자는 마음에서요."

협회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지난 3월 문을 연 학교에는 입소문을 타고 경기도 수원, 평택, 일산 등 전국 각지의 건강장애 학생 16명이 입학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학비는 받지 않는다. 항암치료를 받거나 후유증을 겪는 학생들의 체력을 고려해 수업은 일주일에 3일만 한다. 기초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악기배우기, 사진촬영, 목공, 요리 등 문화·예술·생활 강의도 진행한다. 장기 치료로 일상이 흐트러진 아이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산책과 등산, 요가 등 운동교실도 병행한다.

학교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학생을 위해서는 직접 교사가 방문하기도 한다.

기독교학교는 아니지만 목회자 사모인 허 교장은 학교 문을 열기 전에 개소예배를 드렸다. 학교가 아픈 아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돼 희망을 선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오늘 괜찮아도 내일 증세가 악화돼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학생들에겐 특히 더 기도가 필요하다. 허 교장과 9명의 교사·강사들은 개교 5개월 만에 제자 한 명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허 교장은 "건강장애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새로운 사회적 약자"라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아픈 사람을 보살피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다.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02-3144-2413).

좋은교사운동 '기독교사대회' 개막

전국 기독교사 '기상하라'…1800여명 한자리에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은 2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기.상.하.라(기억하고 상상하라 하나님나라)'란 주제로 '2016 기독교사대회'를 열었다. 3박4일간 열리는 대회에는 초중고 교사 18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회에선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효수 좋은교사수업코칭연구소 부소장 등이 주제강연 강사로 나선다. 1998년 1회 대회 강사였던 박 교수는 강연에서 좋은교사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제시하며 송 대표는 '무엇이 성공이란 말입니까'란 주제로 이 시대 한국 교육계에 필요한 운동과 헌신에 대해 소개한다. 김 부소장은 교사들이 신앙 안에서 무너진 교권, 알파고 시대의 교육 등 현 교육난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강연한다. 말씀강해를 맡은 김형국 나들목교회 목사는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4일간 연속 설교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학급운영과 생활교육' '행복한 수업 만들기' '좋은 학교 만들기' 등 현직 교사가 자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6개영역 39개의 연수과정이 열린다. 연수과정은 초등제자양육과 함께하는 학급경영, 기독교세계관, 크리스천 에니어그램, 회복적 생활교육, 비주얼 싱킹, 보드게임 등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지적 장애인의 구원은 가능한가? (상)

세계밀알연합이사
미주밀알 창단맴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정승원 목사

지적 능력없는 유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는 지적장애인에도 적용

하나님 은혜의 주권적 특성은 지적 능력이 구원 여부와 무관함을 확정해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구원의 과정은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나 유아(幼兒)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 제외된다. 복음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도 그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어떤 기회도 주시지 않고 지옥으로 직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딤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과 모순이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분명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셨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지적 장애인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문제와 뗄 수 없다.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지적 장애인은 어떤 존재로 비춰지겠는가? 분명 그들의 구원을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적 능력에 의존하는 율법적 의가 아니다. 앞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한다(롬3:21).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을 지적 장애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지 않는가?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없으니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제외되어야 하는가? 만약에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인지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면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인지적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따른 믿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일수는 없다.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속에 지적 장애인들이 제외되는가? 지적 장애인이나 유아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10절에 선언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라고 말씀한다. 지적 장애인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이 죄인으로 정죄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차별 없느니라"는 말씀은 진리가 되지 못한다.

지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적 장애인들의 지적 능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 되었는데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님의의가 미치지 않는다면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공평한 말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지적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엡1:11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한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이 뜻 하신 바 가장 지혜롭게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서술한다. 단순히 구원에 관한 것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의 예정하신대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영적, 지적, 의지적, 심리적 상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인간의 영적, 지적, 의지적, 심리적 상태는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determinative)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반응적(responsive)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지적상태와 구원의 관계는 결정적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적 차원에서 논해야 한다. 그리고 반응적 차원은 구원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하는 차원이 아니며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일정하고 보편적인 모습을 기대할 필요는 없는 차원이다.

신1:39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과 욘4:11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는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요'라는 말씀에서 '분변하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 즉 '안다'는 뜻이다. 어린 유아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혹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소위 '행위'이다.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행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능력내지는 공로를 의미한다. 그 행위의 반대가 바로 은혜이다. 은혜는 인간의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주어짐을 의미한다.

롬11:6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은 인간이 지적 공로, 정신적 공로, 의지적 공로, 행동적 공로, 영적 공로 등이 구원에 개입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다. 단지 지적으로 모자라지만 봐준다는 식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요소도 개입되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의 은혜이다. 지적 능력이 구원의 결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 장애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특성을 더 확실하게 부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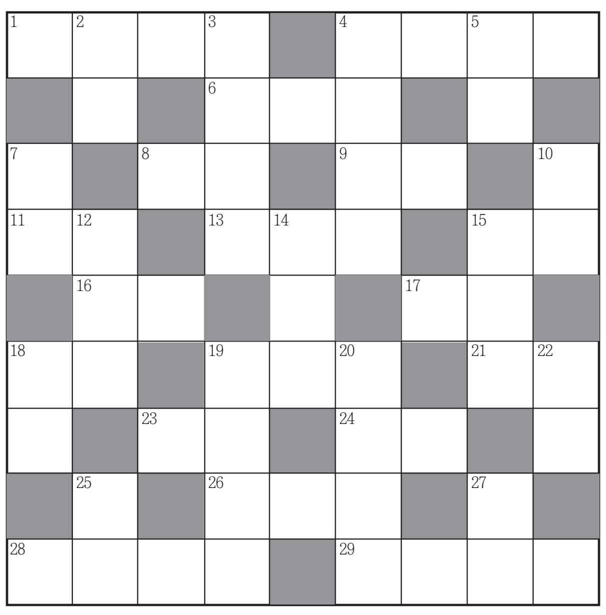
이렇듯이 구원의 결정은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다.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는 지적 능력, 의지적 동의, 도덕적 판단은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사49:1, 렘1:5, 갈1:15).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능력이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필자주] 본 논문에서의 연구대상인 '지적 장애인'은 성경 지식이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이 없는 제 1급 지적장애인을 의미한다.

sastelu@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3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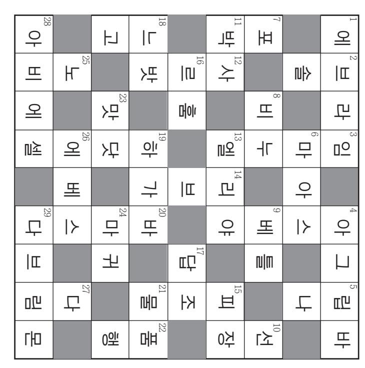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둘째 아들(창41:52).
4. 헤롯대왕의 손자이다. 갈릴리, 드라고닛 등을 통치함(행26:27).
6. 여라므엘의 처음 낳은 람의 아들(대상2:27).
8. 오물을 빼거나 씻어낼 때 쓰는 물건(렘2:22).
9. 명주, 무명, 삼베 같은 피륙을 짜는 틀(삼상17:7).
11. 일정한 학술을 전공하여 낸 논문을 심사하여 수여하는 가장 높은 학위(마2:9).
13. 까마귀, 사르밧 과부, 갈멜산… 이만하면 누군지 짐작되지요(왕상17:15).
15. 짐승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행9:43).
16.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백성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느10:25).
17. 응답의 조서(스 5:5).
18. 여로보암 왕의 부친(왕상11:26).
19. 솔로몬 왕 신복의 한 조상이다(느7:48).
21.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겔27:24).
23. 예수님의 조상이다(눅3:24).
24. OO들과 싸울지라…(찬348).
26. 잇사갈 족속의 성읍(수19:20).
28.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의 누이 함몰레겟의 아들(대상7:18).
29. 다메섹 왕으로서 벤하닷의 부친(왕상15:18).

<세로 푸는 열쇠>

2.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이 시내를 건넜을 것이라 한다(삼상30:9).
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마1:23).
4. 세마포 짜는 자(대상4:21).
5. 가나안의 성읍인데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유다지파에게 주었다(수15:42).
7. 붙잡아서 결박함(막15:7).
10. 배 안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두머리(행27:11).
12. 이곳의 한 과부가 엘리야 선지를 공궤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왕상17:9).
14. 이삭의 처(창24:64).
15.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물건(롬1:25).
18. 애굽 왕(대하35:20).
19. 소바와 다윗과 싸워 패함(삼하8:10).
20. 하만의 일곱째 아들(에9:9).
22. 성품과 행실(잠20:11).
25. 남종과 여종의 총칭(전2:7).
27.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는 일(암7:8).

십자말 정답



선교편지

브라질

"한국을 알아가는 꼴레지오 디아스포라"

브라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 채택사업을 실시한 주 쌍파울로 한국교육원은 쌍파울로에 소재한(Rua Lavapes 474 SAO PAULO) 꼴레지오 디아스포라와 MOU관계를 체결(2013.9.10)하고 그 협약에 따라 꼴레지오 디아스포라 중학교 전교생과 자원하는 초등학생들이 2013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00% 현지인 학생들에게 브라질교육원의 허락을 받아 정규과목으로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 그리고 세계 공영어인 영어, 지금 세계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어, 또는 브라질 입국한지 100년이 넘는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배우고 시험을 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달라고 하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많았고, 이에 동조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본교는 한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인을 위해 세운 학교로서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지역을 섬기며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렴한 학비를 책정해 운영하는 기독교사립학교로 자리를 잡았다. 23년이 흐른 오늘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에 속해 있으며 세계 각국이 선호하는 나라로써 한국을 알기를 원하며, 한국과 교류하기를 원하며, 한국의 문화와 예술, 드라마, 특히 K팝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기업인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200여 기업이 브라질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왔으며 사회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어로 말하고 한글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습관을 알면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학과를 브라질 교육부에 신청하여 허락을 얻고 주 쌍파울로 한국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많은 지원과 혜택 속에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었다. 그러나 한글교육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한국에 대하여 알고 싶도록 이곳에 주재하고 있는 브라질 쌍파울로무역관(KOTRA)의 협력을 받아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을 탐방하게 했다. KOTRA로부터 대형버스 3대를 협찬 받아 브라질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자동차 제조과정을 견학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현대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궁금한 것을 질문하므로 한국기업의 우수성을 알게 하였으며, LG 공장을 방문하여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 생산과정을 살펴보며 최신식 장비를 비롯하여 로봇들이 제품 생산과정 곳곳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운반하고 조립하는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며 도전받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KOTRA에서 주최한 한국무역박람회를 참관하여 전시장에 전시된 브라질에 들어와 있는수많은 한국제품들을 보고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보고 작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관한 학생들 대다수가 삼성, LG에서 나온 새 상품인 핸드폰, 노트북에 관심을 많았으며 직원의 설명을 듣고 실지로 작동해보며 새로운 기능에 놀라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관심을 나타냈다. 또 브라질에 진출한 K팝 쇼를 함께 즐기고, 한국음식 코너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움 속에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쌍파울에 자리 잡은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텅빈 충만" 미술전람회를 함께 참석했다. 한국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전시회를 중학교 전교생이 참관하면서 한국현대미술의 역작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자연 본연의 풍부한 빛과 색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백색의 미를 품은 "텅 빈 달 항아리"를 통하여 오히려 "충만함"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책자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면서 한국 미술을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학교 수업은 중학교 전교생(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들이 정규수업은 각 반별로 주 한 시간씩 한글교육(읽기, 쓰기, 말하기, 단어 암기 등)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수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원한 약 120여명에게 "태권도를 통한 예절교육"과 "음악을 통한 한글교육"을 각각 주 2회 한 시간씩 가르치고 있다.

꼴레지오 디아스포라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한글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추진하므로 리더십을 개발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표현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만남과 나눔과 섬김의 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쌍파울로 한국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각종 행사를 진행하므로 한글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배운 학습을 총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쓰기 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2015.6.23), 한국학교 연합회가 주최하고 쌍파울로 한국교육원이 주관한 "말하기 대회"에 출전하였다. 이 행사에 출전한 본교 출전자가 대회 가장 큰 상인 대상과 상금을 수여 받았으며 장려상을 받았다

꼴레지오 디아스포라 교정이 한국어 능력시험장으로 사용되면서 주 쌍파울로 한국교육원의 후원으로 중학교 전교생이 시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주 쌍파울로 교육원이 주최한 우수학생 선발 한글체험 학습여행에도 참석하였다. 일년 동안 성실하게 수업한 학생들 중 우수학생 6명을 선정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남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기회를 갖으면서 한글 체험 여행을 하는데 합류하였다. 리오 데 자네이로 - 꾸리찌바 - 이과수 폭포 등지를 돌며 선생님들과 함께 말하기 훈련, 때와 장소를 따라 사용하는 한국말과 뜻풀이 공부 등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깊어졌으며, 한국문화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묻기도 하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 '이 노래가 한국 노래였군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글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가면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제법 발음이 정확해지고 있다. 2016년도 본교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게임을 통한 한글 단어 찾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5월16일) △7월 29-30일 산타이사벨에 Recanto Apoena에서 현지인 교사를 대상으로 "꼴레지오 디아스포라 교사연수교육 한국어 강좌"릉 하기로 하였고 △9월중에는 "한글 바로 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주 쌍파울로 한국교육원에 새로 부임한 김소연 교육위원장님이 본교를 방문하여 각 학년 수업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지인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한국교육진흥원에서 수학 선생 한명 파견해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양해각서를 작성하고 MOU 관계를 맺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라틴아메리카를 무대로 삼고 브라질에서 한국을 알고 한글과 한국어를 배운 차세대 주인공들이 한국과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아미고'(친구)가 되어 함께 새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꿈꾸며 시작한 한국어 수업은 비록 시작은 미미하지만 창대한 꿈을 꾸면서 오늘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꿈꾸며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게 하므로 보다 더 친밀한 가운데 한국을 알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말과 글을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름답게 자리 잡아 친밀해지는 것이 더 귀하다고 본다. 브라질 사람들이 이웃으로 받아들임이 없으면 사귐이 없고 사귐이 없으면 나눔이 없고 나눔이 없으면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말과 글의 배움은 상대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수용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제3의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려도 꼴레지오 디아스포라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아가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쓰면서 될 수 있으면 모범적인 한국사람, 뛰어난 한국문화, 질 좋은 한국 상품, 그리고 삶의 의미와 철학을 담은 한국인의 행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월에 리오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초보단계라 현장에 나가 섬길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브라질에 사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에 주재한 주 쌍파울로 한국교육원에 감사를 드린다.

강성철 선교사
kangsungchuel@gmail.com

선/교/보/고

인도네시아 마나도선교훈련센터

1기 훈련생 6명이 한국으로 와서 80일간 한국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6개월간의 합숙 1기 본국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서 언어(영어 및 한국어) 훈련과 개인전도 훈련 등과 한사랑공동체와의 친밀감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생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로 나가 사역하기 위해 기도후원자들과의 든든한 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으로 와서 오히려 훈련생들이 나태해지고 어려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십니다. 분명,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갖는 이 80일간의 훈련은 그들의 사역에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검토와 기도 후에 결정한 것입니다.

선교센터 모습과 훈련생들의 훈련받는 모습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1. 이들이 입국하는 날을 8월 1일로 예정되어있으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지 신분증조차 제대로 없던 지체들이라 여권을 만드는데 몇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명과 2명, 각각 20일까지 서류를 넣으나 그것이 통과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이후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착날짜를 8월 9일로 연기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아울러 적당한 가격의 마나도 출발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항공료가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 마련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훈련장소로 한사랑서울교회와 한사랑펠로우십교회들이 섬겨주실 것이나, 한국어, 영어 훈련교사의 확보, 개인전도 훈련 교사, 식사 담당, 차량 및 섬김이, 주말 사역지 준비 등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나 빠진 것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In His Love, 나순규 드림
soon_na@daum.net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4)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38)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 이야기에서는 커리큘럼의 근본적 핵심인 양질의 교사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중 하나로, 먼저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자들을 적정한 사례를 하고 교사로 모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방안들 중 두 번째로 양질의 교사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으려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사례를 주는 전문 기독교 교육자들보다 사실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 바로 교회 안의 지체들을 교사로 세우고 양질의 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사례를 하는 전문가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는 교회 지체들을 양질의 교사로 만드는 일에 비하면 훨씬 간단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했던 선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 많은 고민 없이 그저 적당해보이는 지체들에게 "올해는 교사로 봉사하시지요" 라고 권면하고는, 때우듯이 한두 번 "교사는 이러해야 하네, 저러해야 하네"하는 피상적 교사 세미나 등을 해왔던 경우는 많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해도 한두 번의 교육과 훈련으로 뚝딱 양질의 교사가 세워질 것 같지 않으며, 그렇다고 교육 및 훈련 기간이 길어진다면, 포기하는 지체들 또한 많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담당할 교사교육 전문가가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이를 뒷받침할 자원들을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에 교사교육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다음세대들을 제대로 섬기고 양육하고자 하는 일은 교회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지체들 중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모습대로 자원봉사자로서 우리의 다음세대를 섬겨오고 있으며, 또한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교회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격려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들 모두를 소위 "양질의 교사"라 칭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그렇다고 이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실시되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힘들고 또한 지난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서 우리 안의 지체들을 균형 잡힌 인성과 지성과 영성 및 열정과 헌신을 가진 교사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꼭 실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중 오랜 기간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탁월한 성경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실한 경건생활로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갖고 꾸준히 섬겨왔다고만 해서 혹은 성경지식과 경건생활에 있어서 출중하다고만 해서 이들 모두를 "양질의 교사"라도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사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과 영성을 모두를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지체들을 교회학교 교사들로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인재들의 면면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할 때, 혹은 현재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이들의 면면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할 때, 우리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두 축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교육의 내용이나 방향 또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발달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양질의 교사들을 많이 배출하여 우리 다음세대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책임일 것임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전략들을 개 교회의 현실에 맞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커리큘럼에서 교사교육의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 정도의 긴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을 담당할 사역자의 연속성과 커리큘럼 자체의 연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이러한 교사교육을 교사로서 봉사하는 선행조건으로(pre-service teacher education)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교사교육은 오히려 교사로 섬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또한 현장감 있게 교육대상의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마치 교사 계속교육 혹은 교사 재교육의 개념으로(in-service teacher education)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훨씬 현실성 있고, 다음세대 교사 수급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필요에 따라서는 베테랑이며 충분히 양질의 교사로 인정되는 교사들도 재충전 및 재헌신의 방편으로 교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회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교육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사들의 교사가 되어줄, 교사교육을 담당할 사역자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모든 교육을 다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을 연계하고 자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를 위한 교회적인 재정지원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공유되어, 교사교육을 위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성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사가 중요하고, 특히 양질의 교사가 중요하며, 이에 우리가 힘을 모아 지체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 말입니다.

이 일은 역시 우리 사역자들이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사역자들이 먼저 교사 및 교사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과 의미를 체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역자들의 사고, 태도, 가치관, 신앙 등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전체 교회에 스며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점차적으로 교사교육이 교회교육의 하나의 큰 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내 지체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 실시
장기간에 걸친 교사계속교육/교사재교육 개념으로 이해해야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삼상30:21-22)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을 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쳐서 200명은 후방에 남게 되고 400명이 출격을 했지만 아말렉을 어디에서 찾을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애굽사람을 만나 그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아말렉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찌라도 늘 하나님 한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형통한 복을 받아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승리했지만 다윗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합이 깨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몇몇 나쁜 사람들이 후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으니까 처자만 돌려주어서 떠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것은 사역보다 형제자매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삼상30:22-23)

본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동거동락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분열될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잘되고도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분열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NO!"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찾아온 것을 나누어주며 모두 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 수고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후방에 남아 짐을 지키던 사람들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수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삼상30:23-25)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잘한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함께 사랑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1)교회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이요 2)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오늘 내가 살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 희에게 선사하노라(삼상30:26-30)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받은 복을 교회에만 나누지 않고 그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십수년간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갚습니다. 다윗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잘 됐을 때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금 사울이 패전하매(삼상31:1-12)

30장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고 다윗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써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는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멋있게 출발한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키가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이제까지 늘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토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삼상34:1-12)

사울왕과 그 세 아들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성도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장군과 모든 병기 든 자와 그리고 아들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패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결국 실패와 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터키 쿠데타 발생원인 세속주의 vs. 이슬람주의 각축장

〈3면에서 계속〉

귈렌은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망명 중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귈렌이 국내 관료체제 내의 지지자들을 통해 '제2의 국가'를 세우려 한다며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다.

추종자들에게 지위 높은 학자(hocaefendi)로 알려진 귈렌은 분명 터키 공직사회, 언론계 내에 추종 세력이 있다. 그가 이끄는 히즈멧(봉사) 또는 자마트 운동으로 알려진 사립학교 네트워크는 140여 개국에 뻗쳐 있다.

그 자신 1999년 추종자들에게 "시스템의 동맥 안에서 모든 세력 중추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그의 영향력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2003년 그의 총리 선출에도 힘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이후 귈렌파들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근 터키 최대 일간지 중 하나가 귈렌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영권 인수를 명령했다.

터키는 미국에 귈렌의 송환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명 귈렌이 배후라고 믿는다. 비날리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지난 16일 미국에 있는 귈렌 편을 드는 나라는 모두 터키와 "교전 상대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귈렌의 히즈멧 운동 미국 단체 '가치공유연합(The Alliance for Shared Values)'은 해 군 장교 8명이 체포됐다.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르사에서 귈렌파 운동가 11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귈렌의 조카를 포함해 귈렌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29명이 체포된 이즈미르 인근에서도 귈렌 운동이 활발했다.

쿠데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군 내부의 쿠데타 주동 세력을 자처하는 단체인 이른바 '평화위원회' 지도자 중 귈렌과 관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터키 관영 미디어는 무하렘 코세 대령을 쿠데타 지도자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 3월 관련 의혹으로 군복을 벗은 뒤 귈렌 운동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쿠데타 계획은 주로 치안군 대원들 사이에서 계획됐다.

한편 DHA 통신사는 2013-2015년 터키 공군 사령관을 지낸 아킨 외즈튀르크가 쿠데타 주동자였다고 보도했다.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발생했지만 앙카라와 이스탄불 그리고 서방 국가 정치인들은 대체로 쿠데타의 실패에 안도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동 '문제'의 일부이면서도 어쩌면 어떤 '해결책'에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는 대립적인 인물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방 군대에 공군 기지를 내줘 IS를 폭격하도록 했다. 하지만 IS 전사들은 시리아 접경을 마음대로 넘나든다. 터키는 변함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남동쪽의 쿠르드족 도시를 수시로 폭격한다.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반체제 세력을 가차 없이 짓밟는다. 난민 위기로 유럽과 협력할 때도 에르도안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유럽 쪽에서 많이 터져 나왔다. 정치인들은 부인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찬성자 중 일부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터키의 EU 가입 전망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터키는 공식적으로는 세속주의 국가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종종 이슬람주의를 끌어안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쿠데타 가담자들이 내세운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다. 터키 국민의 98%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군부가 종종 세속주의 가치의 수호자로 자처해왔기 때문이다. 군부는 가장 최근인 1997년의 거사를 포함해 그동안 수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서방 입장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서방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인구 8000만 명의 터키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딱 한 가지 있다. 에르도안이 통제하지 않는 터키다. 터키가 남쪽 시리아처럼 전면적인 내전으로 빠져들면 중동 전역의 정정이 불안정해지고,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유럽 진입 장벽이 무너지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폭력사태의 불똥이 튀면서 이스라엘·이란·미국과 러시아가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하지만 터키 상황은 여전히 위험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게 뻔하다. 군부뿐 아니라 터키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적대감이 커질 것이다. 군부가 굴욕감을 느끼고 쿠데타 지도자들이 처형되면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소셜미디어·휴대전화로 연결된 세상에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쿠르드족은 계속 탄압 종식과 어쩌면 자치권까지 요구하고, 이슬람국가(IS)는 터키를 계속 비교적 손쉬운 표적으로 여길 것이다. 게다가 키프로스를 둘러싼 분쟁도 계속된다.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실패한 쿠데타로 파손된 건물과 교량 공사가 벌써 시작됐지만 터키의 손상된 대외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

횃불과 국기를 들고 이스탄불 탁심 광장에 몰려든 사람들

영부인 시절부터 싫어했던 정서 꾸준히 지속돼
소득평등 (반)행위, 수억원대 강연료, 이메일 파문...

쿠데타기도 음모 혐의에 관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축했다. 귈렌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직접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에 시달린 사람으로서 그런 시도에 관련됐다는 혐의는 특히 모욕적"이라고 썼다.

분명 귈렌과 군부의 이해는 과거 크게 엇갈렸다. 군부가 정치에 마지막으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한 것은 2007년이었다. 에르도안과 귈렌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할지 모른다고 우려해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군부는 대선 개입선언을 통해 터키 세속주의의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한편으론 영향력 있는 이슬람학자인 귈렌을 항상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그는 세속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터키 군부는 그가 청년층을 '세뇌'하고 정교일치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집권당 진영이 귈렌파의 심장부로 지목한 터키 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쿠데타 공모 혐의자들이 체포된 듯하다. 16일 아침 이른 시각 부르사에서 치안군(잔다르마) 사령관 유르다쿨 아쿠스 대령을 비롯

인/터/뷰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

복음 통해 기쁨과 행복 찾는 학교로...

실리콘밸리에 인턴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실리콘밸리 지역 기독실업인협회 소속 실업인들, 그리고 창조과학 탐사여행차 LA를 방문 중인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을 21일 만났다.

"지난 7월 10일 실리콘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창업교육차 한동대 학생 15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순훈 총장은 "한동대학교는 기독교리더를 만드는 학교, 순수신앙을 지키며 순수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은 단순히 학생들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삶의 목적을 두는 교육을 지양하며, 이타적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철학은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치가 있는 대학으로 가꿔나가자'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복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창조력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하나님의 창조 본받는 창조력 키워야

선자 시절 정부의 인수위에 관여한 적이 있는 장순흥 총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근육을 사용해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즉 창조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그래야만 3-4만 달러 시대로 갈수 있게 됩니다."

그가 창조를 부르짖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창조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은 학창시절을 취업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을 위해 경시대회를 열기도 하고 연수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창업과 취업이 됐을 때 학점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인재양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그 결과 한동대학교 출신 미국변호사가 30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동대출신들은 월드비전과 컴패션 등 NGO에도 활동하고 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 선교적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입학전형인데 목회자자녀(PK, MK) 특별전형을 마련해 입학정원의 25%로 선발하고 있다. 선교사자녀의 경우 12년 이상 해외체류를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기독교대학들이 더 이상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장 총장은 이를 위한 해결책은 복음이며 한동대학교가 복음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찾는 학교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resident@handong.edu

〈박준호 기자〉